



웃음으로
내일을 만드는



교정공무원의
희망찬 이야기

Re: Live

웃음에서 행복으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월간 <교정> 4월 호에서는 함께 웃는 교정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C O N T E N T S

Re:member

- 04 **역사와 오늘**
해남교도소
- 12 **생각의 접점**
더불어 살며 행복을 쌓는
해남교도소
- 14 **응원의 선물**
'준비된 복지'로 완성하는 해남교도소의 행복
해남교도소 복지과
- 18 **물고 답하다**
그대가 있기에 한 번 더 웃습니다
해남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종선 & 교사 차대훈
- 22 **교정의 가치**
교정교화의 모닥불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다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박혁
- 24 **취미의 공유**
붓을 벗 삼은 일상, 인생을 행복으로 '채색'하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김상욱
- 28 **전문가에게 묻다**
노후와 은퇴 준비를 위한 지침서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인치건 &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 권도형
- 32 **나도 패션왕**
삶을 변화시킬 특별한 일상을 만나다
소망교도소 주임 배송철
- 36 **교정 안에서**
교정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길을 찾다
- 38 **교정의 일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숨은 공로자
대구교도소 교위 김현석

Re:mind

- 40 **새로운 만남**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는 '자연산 헬스보이'
방송인 이승윤
- 44 **여행 속 휴식**
봄꽃 명소
햇살인 듯, 톡
- 48 **문화가 중계**
감염병을 다룬 영화들, 그 특별한 세계
영화가 현실에 시사하는 것들
- 50 **맛의 탐방**
봄을 상징하는 음식
나물
- 52 **교정 리포트**
미국의 교정시설
COVID-19 대응 관련 한계 및 쟁점②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4월호 Vol.551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4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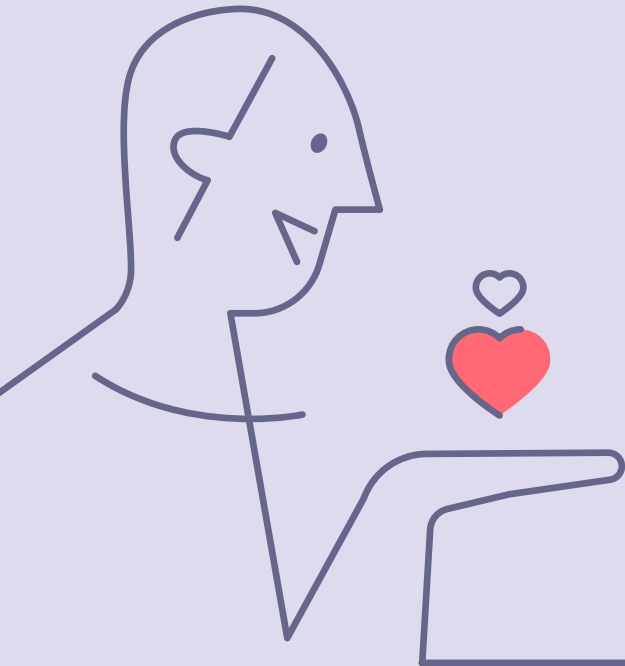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땅끝에서 새 삶을 위한
시작을 돕는다
믿음과 웃음을 주는
해남교도소



2010년 해남교도소 개청식

“
해남교도소는 지난 2010년 개청한
이래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교정행정의 비전을 실천합니다.
소형 교정시설의 추세에 맞춘
'소형 교정시설의 모델'로서 수용자
교정교화와 처우 개선에 힘씁니다.
”



2010년 해남교도소 전경



“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합니다.
”

소통 중심의 수용자 교정교화

“ 해남교도소는 스마트 접견 등의 선진 교정행정 서비스로 수용자와 민원인 모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수용자의 가족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 화상 접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0년 해남교도소 정문



해남교도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용자의 영상편지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에게 전송하는 '행복브릿지 영상편지' 보내기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용자의 인권을 지키며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도모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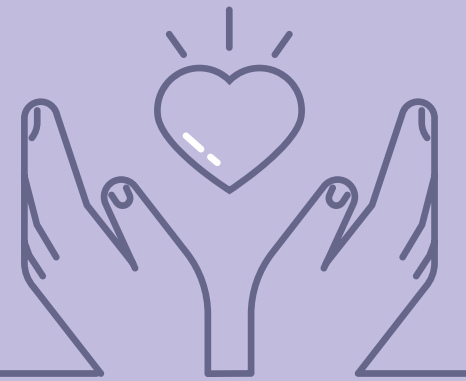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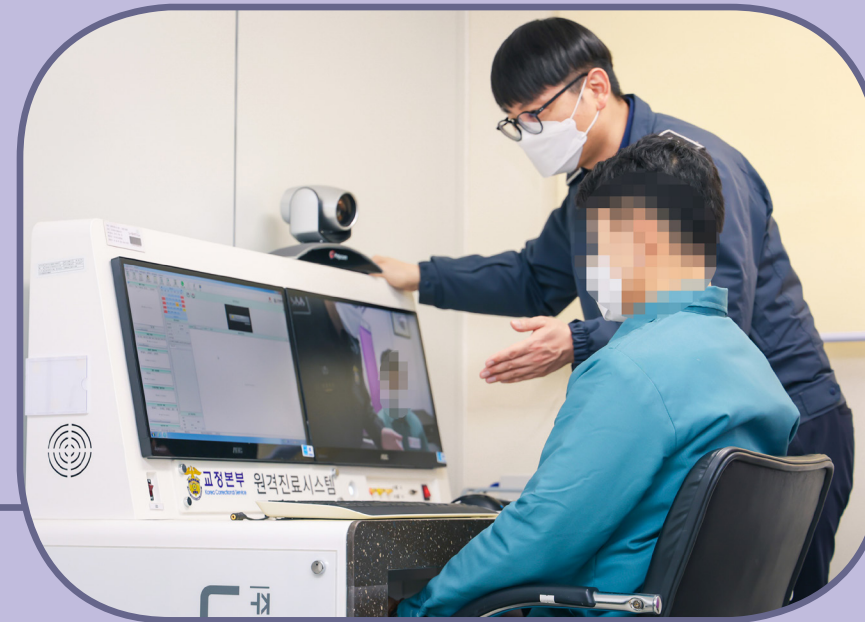


2020년 출입 차량 방역



“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인권 존중을 실현합니다.
”

인권 존중의 기본을 갖춘 교정시설



2020년 출입 인원 체온 측정

“
해남교도소는 철저한 보안 근무를
수행하면서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격의료를 실시합니다.
”



안전과 신뢰가 바탕이 된 교정행정



2010년 해남교도소 보안본부



“
 해남교도소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신뢰감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합니다. 철저한 보안 관리로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해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줄이며,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2014년 귀빈 방문



“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정행정을 실천합니다. ”



더불어 살며 행복을 쌓는

해남교도소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해야 비로소 행복한 사회적 동물이다. 이를 잘 알기에, 해남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은 더불어 살아가며 일상의 행복을 켜켜이 쌓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교정공무원으로서

행복한 순간은 [] 이다!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때

복지과장 최영운

동료들의 고충이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복은 언젠가 저에게 도움의 손길로 되돌아오더군요.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할 때

교위 이명식

때때로 가족들이 제 일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나면 다시금 일에 대한 열정이 활활 불타오릅니다.



밥이 맛있다는 말을 들을 때

교위 하명성

올 1월부터 급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동료들이나 수용자들이 식사를 마친 뒤 '밥맛이 좋다'는 말을 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출소자가 잘 살아갈 때

교감 박태욱

제가 교정교화한 수용자가 출소 후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복지과로 왔을 때

교사 심원

업무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복지과에서 일하게 됐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와서 일해 보니 '역시!'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두 배로 행복했죠.



공사를 잘 마쳤을 때

공업주사보 정용석

가끔 휴가, 육아휴직, 자가격리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어려움을 이기고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일의 보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일 덕분에 가정을 이뤘을 때

공업서기보 조원규

작년에 결혼한 아내에게 왜 저를 선택했냐고 물으니 '사람을 바른길로 이끄는 교정 직렬에 몸담고 있어서 믿음이 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이 저를 결혼으로 이끈 셈이죠.

'준비된 복지'로 완성하는

해남교도소의 행복

해남교도소 복지과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이에 걸맞게 해남교도소 복지과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환경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그 중심에는 해남교도소 복지과 특유의
'준비된 복지'가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웃음이 저절로 피어나는 부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없는
복지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제든 달려오는 해남교도소의 '홍반장'

복지과는 해남교도소의 해결사 같은 존재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홍반장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 동료들의 업무 진행 및 수용자들의 수용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한 뒤 유유히 사무실로 되돌아온다. 이렇듯 복지과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기에, 해남교도소에 속한 모두는 쾌적한 환경에서 큰 불편 없이 일상의 행복을 켜켜이 쌓는다.

“복지가 ‘행복한 삶’을 뜻하는 단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복지과는 그 의미 그대로 해남교도소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총 22명이 예산 집행과 물품 구입 등을 담당하는 구입팀, 관용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관리팀, 교정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는 시설팀,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식사를 책임지는 급양팀으로 나뉘어 일하며 교정교화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언제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해남교도소 복지과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발 앞서 준비하는 치밀함을 바탕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교정교화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 직원들은 협업해야 할 일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언제나 소통과 공유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가 꽃필 수 있고, 이를 놓치지 않고 업무에 적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죠.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일종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셈인데요. 덕분에 모든 복지과 직원들이 한층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준비성

해남교도소 복지과 특유의 선견지명과 꼼꼼함은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빛났다. 최근 직원식당 조리원과 취사장 근무자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던 적이 있다.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져 당황할 법도 했지만, 복지과 직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 정확하게 도시락 생산 업체에 연락을 넣었으며 식당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도시락 급식을 이어 나감으로써 급양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



“사실 확진자가 발생하기 훨씬 전부터 해남군 내 몇몇 도시락 업체를 조사하고 비상시에 대비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른바 ‘확진자 발생 시 급양 메뉴얼’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지 않고 곧바로 도시락 업체와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의 맛과 영양 균형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기에 ‘알차고 맛있다는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훈훈한 평가도 들을 수 있었죠.’

작년 10월 디젤 자동차에 주입하는 요소수가 부족한 소위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복지과의 빠른 대응이 돋보였다. 요소수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자 관리팀 직원이 평소 관용 차량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 연락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수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고, 4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복지과의 치밀한 업무 성향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

“늘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시설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 직원 휴게실을 리모델링했고, 안마의자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심신치유실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보안과 야간 근무를 서는 선·후번 직원들의 감염병 위험도를 낮추고 불편을 덜기 위해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조성했는데요.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시설을 꾸준히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을 위한 행복’을 만들어 가다

조직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려면 구성원들의 단합력이 강력해야 한다. 복지과를 이끄는 최영운 과장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정작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웃음이 저절로 피어나는 부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없는 복지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간식이나 차를 수시로 나누고, 점심을 먹은 뒤에는 해남교도소를 따라 난 산책길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주고 받습니다. 이런 시간이 복지과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복지과는 개청 직후부터 해남교도소의 숙원 중 하나였던 상수도 인입 공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석회석 지대 위에 교도소가 들어서 있다 보니 온수기와 같은 설비가 고장이 나고 각 공간 청결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4월 상수도 인입을 위한 송수관로 증설 공사가 무사히 끝나면 올 상반기 안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인입 공사 이후에도 청사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민원인 대기실 증축, 수용거실 내 화장실 출입문 교체 등의 공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금의 업무 태도와 분위기를 잘 유지한다면 성공적인 과업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해남교도소 직원들과 수용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과의 지속적인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MINI INTERVIEW

뭐니 뭐니 해도
화합이 최고입니다!



“직원들이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장으로서 밥값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합은 창조적 아이디어의 원천이자 원활한 업무 진행의 원동력입니다. 복지과가 사랑하는 화합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더 힘을 내겠습니다. 우리 복지과 직원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복지과장 최영운

그대가 있기에 한 번 더 웃습니다

해남교도소 보안과 교감 이종선 &
교사 차대훈



만나면 웃음꽃 피는 유쾌한 선후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우리는 머나먼
인생길을 걸어야 하기에 주변,
특히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들과 즐겁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
여기 서로가 있어서 한번 더 웃으며
일한다는 선후배 교정공무원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종선 교감과 차대훈
교사는 대화 내내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터트렸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차대훈 교사 — 교감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도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이 쓰였는데, 월간 <교정> 덕분에 커피라도 한잔할 수 있
게 돼서 기쁩니다!

이종선 교감 — 나아말로 차대훈 교사의 당찬 모습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무척
좋네요. 2019년 6월에 해남교도소에 오자마자 수용1팀장을 맡았을 때도 4일에 한 번씩 운동
근무자로 와 줘서 든든했는데, 기동순찰팀장을 맡은 지금도 바로 옆 조사실에서 열심히 일하
고 있을 차 교사 생각에 자주 보진 못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차대훈 교사 — 사실 저는 교감님을 떠올릴 때마다 입가에 웃음이 번집니다. 운동 근무자로
온 저를 한 팀처럼 맞아 주셨고, 재미있는 농담으로 어려움과 어색함을 순식간에 풀어 주셨잖
아요. 팀원들과 함께 목포에 놀러 가기로 하셨을 때는 저에게 먼저 ‘함께 일하고 있으니 팀원이
나 다름없는데 괜찮으면 함께 놀다 오지 않겠냐고 물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종선 교감 — 맞아요. 목포에서 맛집 탐방도 하고, 그 유명한 인동주마을에 가서 막걸리
도 나눴잖아요. 코로나19 확산 전 일인데도 어제처럼 함께한 기억이 생생하네요. 나는 오히려
차 교사가 내 권유에 흔쾌히 응해 준 게 아직도 고마워요. 팀 선배도 아니어서 자칫 부담스러
울 수도 있었을 텐데 시간을 내줬고, 덕분에 웃음 넘치는 추억을 함께 쌓았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차 교사를 생각하면 항상 웃음부터 난답니다.

차대훈 교사 — 그 이후로 퇴근 후에 족구를 하면서 교감님과 많이 가까워졌지요. 경력 차
이가 20년이 넘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하늘 같은 선배님과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
낼 수 있다니,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교감님이 계시기에 힘들다면 힘든 교정공무원
생활이 한결 수월하고 즐겁습니다!



차
대
훈
교
사

이
종
선
교
감

교정공무원의 필수 덕목, 팀워크

이종선 교감 — 우리처럼 직장 선후배 사이가 좋아지려면 무엇보다도 단단한 팀워크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 교사도 비록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목포에 함께 다녀온 뒤로 부쩍 친해지고 손발도 잘 맞았잖아요. 특히 모든 수용자를 공평하게 교정교화해야 하는 우리 교정공무원들의 뜻이 서로 안 맞으면 교정기관의 규율과 질서가 흐트러지니, 차 교사도 근무하면서 이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차대훈 교사 — 작년 4월 코로나19 밀집 접촉으로 갑작스럽게 관사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을 때 팀워크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당시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밥을 잘 챙겨 먹으라며 매일 한두 번씩 도시락을 문 앞에 놔 주고 가더군요. 온종일 한 공간에 혼자 있어야 하다 보니 조금 우울하고 불안했는데, 동료들의 마음이 담긴 도시락에 몸도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래서 평소 교감님이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구나' 생각했죠.

이종선 교감 —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팀워크를 다질 수 있었어요. 함께 운동하거나 맛있는 것을 나눠 먹을 때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졌고, 하다못해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죠. 코로나19 이후로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대신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경조사를 챙겨 주거나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하며 아쉽게나마 팀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차대훈 교사 — 저도 갑작스럽게 진행된 감염병 사태 때문에 동료들과 친목 도모 활동을 하기 어려워져서 늘 아쉽습니다. 하지만 교감님 말씀처럼 팀워크는 교정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에,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SNS 단체 대화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평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유행하는 내용이나 재미있는 사실을 검색하고 틈틈이 직원들에게 알려 줍니다. 코로나19도 조금만 더 견디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겠죠? 교감님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고요.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감님 말씀을 듣고 나니
눈앞이 한층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격언을 앞으로 오래도록 기억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내일을 기약하다

차대훈 교사 —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때때로 벅찬 일들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땐 교감님과 같은 베테랑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저와 같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후배 교정공무원들과 마주하면 어떤 덕목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이종선 교감 — 아무래도 수용자 교정교화가 교정공무원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언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무엇보다도 수용자와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교정기관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 돌아가야 마땅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약속부터 해 버리면 나중에 지키지 못했을 때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수용자와의 약속도 엄연한 약속이기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정교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용자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정해진 규율과 법을 기준에 뒤야 한다는 점을 퇴직하는 순간까지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차대훈 교사 — 교감님 말씀을 듣고 나니 눈앞이 한층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격언을 앞으로 오래도록 기억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교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솔선수범하시다 보니 때로는 교감님 몸이 상하실까 두렵습니다. 저희 후배들과 오래도록 함께 일하셔야 하니, 항상 교감님의 몸을 아끼시면 좋겠어요. 감염병 상황이 나오시면 곧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교감님!

이종선 교감 — 해남교도소에 온 이후로 3년여 동안 차 교사의 활동을 지켜봤어요. 자만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해 나간다면 교정기관의 튼튼한 동량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늘 초심을 되새기세요! 선배로서 차 교사에게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날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예전처럼 땀 흘리면서 족구 한판 하죠. 그날의 밥과 술은 선배가 부족함 없이 쏘겠습니다.(웃음)



Teamwork



교정교화의 모닥불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다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박혁
(무등일보 사회부 국장)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순간의 잘못으로 교도소에 왔지만, 수용자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 수용자 또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필요한 인간이며,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 “이런 게 바로 교정교화 아닐까요?”라며 웃음 짓는 박혁 교정위원의 목소리는 화투불처럼 따스했다.

기꺼이 들어선 교정위원의 길

해남교도소와 박혁 교정위원의 인연은 해남교도소가 개칭한 2010년에 움뚧다. 평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다방면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며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두었던 그였기에 해남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주변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12년여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사실 교정위원을 포함한 여러 봉사활동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5년간 서울 강남소방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응급 구조와 화재 진압을 하면서 어려움에 맞닥뜨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망연자실한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을 보며 봉사활동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이후에는 고향에 내려와 1990년부터 무등일보 기자로 활동했는데요. 다양한 사건을 취재하던 중 죄를 짓고 교도소에 입소한 수용자들을 만나며 이들에게도 적절한 도움과 온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이렇다 할 기회가 없어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남교도소가 문을 열면서 교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내심 기뻐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바라던 일을 하게 된 만큼, 그는 지금껏 교정협의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의 중심에서 있었다. 기댈 곳이 없는 무의탁 수용자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심층 상담을 진행했고,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해 안정적인 수용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불우 수용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으며, 수용자 정서 순화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수용자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용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젓값을 치르는 일과 별개로 그들의 심신 안정을 불러오는 여러 활동도 병행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정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교정위원들과 힘을 합쳐 부족하게나마 민간 차원에서의 교정교화 활동을 내실 있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중요한 출소자들의 삶

박혁 교정위원의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교정교화 활동은 그를 교정협의회회장으로 이끌었다. 2017년 3월 제4대 회장이 된 그는 내치 제5대 회장까지 지내며 4년간 해남교도소 교정협의회를 살뜰하게 책임졌다. 교정협의회 활동을 기획, 진행하며 늘 ‘내가 수용자라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고, 수용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가끔 출소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교정협의회회의 활동 덕분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한결 수월하게 수용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위원님처럼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교정교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더 열심히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박혁 교정위원은 ‘죄를 뉘우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수용 생활’ 못지않게 ‘수용자의 출소 후 인생’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출소자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벗어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사회 초년생’이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로 배려합니다. 출소자들도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상에 무사히 안착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출소 후의 삶에 대해 유무형적 지원책을 더욱 폭넓게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우면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박혁 교정위원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굳게 믿으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나선다. 그들이 출소 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4월의 봄날 같은 포근한 심성이 물씬 느껴졌다.

빛을 벗 삼은 일상, 인생을 행복으로 '채색'하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김상욱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그림이 선물한 풍성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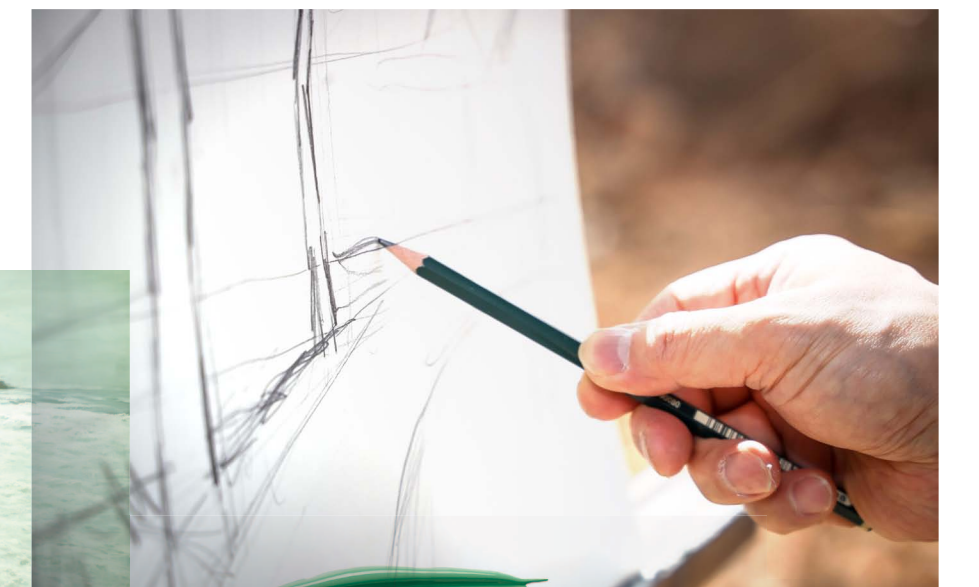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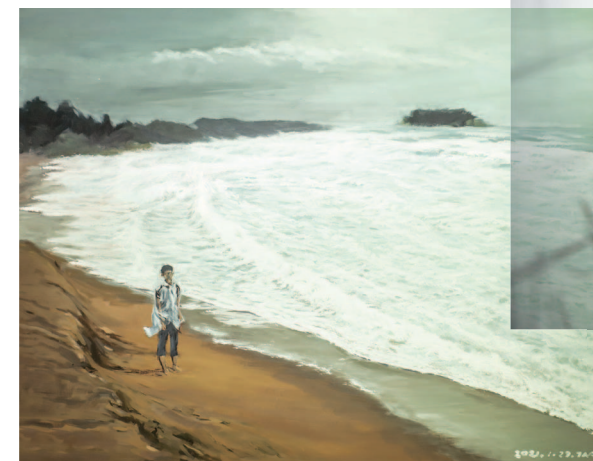


창작의 본질적 쾌감은 하나들
완성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의정부교도소 보안과 김상욱 교위는
새하얀 캔버스를 물들이며 창작의
세계를 만끽하고 있다.
섬세한 붓 터치로 일상을 더욱 풍성하게,
보다 생동하게 누리는 그의 그림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폭에 담긴 행복은 이만큼 크다.

본래 꿈은 '우연히' 생겨난다고 했던가. 의정부교도소 보안과 김상욱 교위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림에 호기심이 생겼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복도에 나갔다가 벽에 걸려 있던 어느 테생 그림을 마주하면서다. 눈길을 땔 수 없었던 고등학생은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문득 떠오른 소망에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그림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다음날부터 학교 미술부에 가입하고 그림을 배웠죠. 서양화로 입시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꽤 흥미를 느끼고는 한동안 그림을 그리다 잠시 손을 놓았었는데요. 지난해 잠 못 이루던 밤에 의정부교도소의 숲길 풍경을 그리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욱 교위는 휴대폰을 활용한 디지털 그림부터 수채화, 파스텔화, 아크릴화, 유화까지 그림의 영역을 능수능란하게 넘나든다. 요즘에는 주로 아크릴화를 그리지만 차분한 색의 질감을 내기 위해 목탄과 파스텔을 칼로 간 후 아크릴 물감에 섞어 사용하는 등 아이디어를 활용해 자신만의 화풍을 표현하고 있다. 풍경, 인물, 추상 등 그림의 주제 또한 다채롭다. 풍경화의 경우 바다를 자주 그리는데, 직접 그 장소를 찾아 바다에 대한 느낌을 오롯이 경험하고 난 후에야 작품을 완성한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동료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필을 사용한 인물화도 즐겨 그린다. 이때 걸모습이 아닌 표정 속에 담긴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다. 살아오면서 누적된 표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추상화는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이처럼 김상욱 교위는 폭넓은 예술 활동으로 창작의 기쁨과 생동감 넘치는 일상을 누리는 중이다.





'나'를 드러내는 점, 선, 면

김상욱 교위에게 그림을 그리는 일은 온전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수작업의 결실이란 결국 내 모습 그 자체이니 말이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있고 살았던 나에게 집중하는 힘이 샘솟는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림은 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지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에 형체를 입혀주는 과정입니다. 혹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장면을 내가 보는 시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기도 하죠. 그림에 몰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고 불편한 일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설정하고 그림을 그릴 때면 삶에 생동감이 느껴져요. 언젠가 심리학에 능통한 직장 동료가 ‘그냥 그리는 것보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더욱 즐겁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해줬는데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지난해에는 '2021 공무원미술전'에 도전했다. 재료와 주제, 완성도 등을 고심해서 작품을 완성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림을 그리면서 품은 첫 목표를 이뤘다. <꽃밭>이라는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이 입선한 것이다. 건물 고층에서 바라본 주택가의 모습을 그렸는데, 아늑한 보금자리를 의미하는 집의 순수성과 본질을 꽃밭으로 표현하며 공감을 끌어냈다.

이뿐이 아니다. 그림은 주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목을 다지는 매개체가 돼 주기도 한다. 2년 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동호회를 만들 계획까지 세웠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쉽게도 진행하지 못했지만 동호회 활동이 가능해지는 날이 찾아오면 벽화 그리기 봉사 같은 유의미한 활동을 이어갈 참이다.



섬세한 붓 터치로 완성하는 한 폭의 행복

김상욱 교위는 그림을 두고 '시간을 박제한 추억'이라 정의한다. 찰나의 순간에 느낀 감정, 감각, 풍경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집 한쪽에 마련된 작업실에는 추억이 깃든 작품들이 즐비해 있다. 아들과 함께 떠난 동해 차박 여행의 추억을 담은 그림은 가장 소중한 작품 중 하나다. 여행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풍주의보 소식을 들었다. 한적한 바닷가에서 세찬 바람을 맞으며 작은 텐트를 치고 밥을 먹었는데, 그곳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아들 사진을 찍었더랬다. 당시의 파도 소리와 움직임, 바다 수색을 비롯해 아련한 감정을 담아 그림을 그렸다. 최근 교정공무원 동기와 떠난 서해 여행의 추억도 그림으로 남겼다. 긴 운전 끝에 도착한 해남항의 밤 풍경은 아직도 생생하다. 강렬하게 물 위를 비추는 불빛들과 잔잔한 바닷가의 정적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각기 다른 매력의 두 바다에서 그의 섬세한 화풍을 고스란히 감상할 수 있다.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연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파도의 소리, 바람의 세기, 공기의 온도 등을 그림에 그대로 녹여내려 노력합니다. 당시의 기억을 또렷하게 재현해냈을 때의 희열은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어요.”

김상욱 교위는 그림에 도전하고 싶지만 주저하는 이들을 위한 도움말도 잊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려면 기본기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학원에 등록해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기본기를 다진 후에는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찾아보되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그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면 금방 성장한다고 용기를 건넸다.

김상욱 교위는 그림으로 또 다른 꿈을 꾸다. 더욱 다채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한 후, 1~2년 후에 전시회를 여는 것이 1차 목표다. 작품을 나만의 것이 아닌 모두와 공유하고 싶은 이유에서다. 공무원미술전 입선으로 자신감과 경험을 얻었으니 다른 대회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누그러지면 적정한 시기에 직장 내 예술동호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예술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교정공무원 동료들을 향한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살 때가 많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글쓰기 등 모두 좋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시기잖아요. 창작 활동으로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내면적으로 훨씬 강해질 거예요. 우울한 시대를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도 여유로워질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취미의 공유> 코너 참여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인
치
견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권
준
형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

내일이 더 행복하도록! 노후와 은퇴 준비를 위한 지침서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인치견 &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 권도형



인생 시즌 2를 위한 노후 가이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 시기가 멀지 않은 이들은 다가오는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터. 인치견 교감은 자신의 노후 설계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자 상담을 신청했다.

“어느새 퇴직까지 4년 남았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하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노후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도움말을 얻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닿았네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방향을 잘 잡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구와 교육, 컨설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7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이어왔다. 자산 중심으로만 이뤄지던 편향된 은퇴 설계가 아닌 ‘행복한 삶’ 본질에 충실한 은퇴 설계를 제시한다.

“먼저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이어오신 데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지요. 교감님의 은퇴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고 다양한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여유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권도형 대표는 자신의 삶에 목적을 부여하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인치견 교감을 위한 맞춤형 조언을 건넸다.

인생 100세 시대, 짧아진 은퇴와 길어진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서울남부교도소 보안과 인치견 교감이 노후 설계 전문가와 만나 제2의 인생에 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이것이 궁금하다!

Q&A



인치견 교감 언제부터 은퇴 설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권도형 대표 은퇴 설계는 특정 시작점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흔히 은퇴 자금을 노후 준비의 1순위로 생각하지만 '내 생활'을 찾는 과정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교정공무원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미뤘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면 좋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되, 인간관계의 폭도 넓혀보길 추천합니다. 요즘은 지자체 기관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목공예, 드론 등을 무료 혹은 저렴한 수강료로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교감님께서 지금부터 3~4년간 준비한다면 은퇴 생활을 원활하게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권도형 대표 평소 교감님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치견 교감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7~8년 전부터 꾸준히 공부와 봉사활동을 해 왔어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노숙인 배식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권도형 대표 그러시군요. 사회복지라는 관심 분야와 봉사활동을 접목해 역량을 잘 발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람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은퇴 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업의 연장선상으로 연결하면 더 좋습니다. 이를테면 봉사활동은 꾸준히 하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우리동네 보안관' 실버 지킴이에 지원해 보람과 경제적 성취를 동시에 꾀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치견 교감 은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알려 주세요.

권도형 대표 재무적인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건강, 돈, 인간관계, 시간, 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고려하면 좋습니다. 건강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돈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통해 받는 정서적 지지도 매우 중요한 만큼 내가 누구와 어울려 살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죠. 60세 퇴직 후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35만 시간이 훌쩍 넘는 노후 생활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직장생활이 아니더라도 활동량을 유지해 주고 수입원 역할을 하는 '업'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치견 교감 말씀하신 다섯 가지 요소를 잘 지키기 위한 노하우도 궁금합니다.

권도형 대표 우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하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배드민턴을 즐기는 교감님의 경우 '2년 후에 아마추어 대회 출전'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한다면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을 겁니다. 노후 자금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큰 투자는 지양하길 바랍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하는 소소한 투자는 좋습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반드시 충분한 시장조사와 공부,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을 추천합니다. 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인치견 교감 은퇴 설계를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일을 추천해 주세요.

권도형 대표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30년간의 단·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루, 한 달, 분기, 1년, 5년, 10년 기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다섯 가지 요소의 카테고리로 나눠 계획을 세우길 추천합니다. 퇴직한 이후 첫날의 생활 계획표를 미리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빈칸을 촘촘하게 채우는 일이 곧 은퇴 설계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 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네이비 슈트 & 페니 로퍼

IT기업에 출근하는 듯 산뜻한 느낌을 주는 오피스 룩. 봄을 맞아 밝은 네이비 슈트와 깔끔한 와이셔츠, 브라운 페니 로퍼를 매치해 전체적으로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스타일이다.

삶을 변화시킬 특별한 일상을 만나다

노란색 개나리가 활짝 웃으며 인사하더니, 이제는 분홍색의 진달래와

벚꽃이 잠깐 나와 완연한 봄을 느끼고 가라며 손짓한다.

화사한 봄꽃의 재촉에 배송철 주임이 못이기는 척 특별한 외출을 나왔다.

글 이원복 사진 홍승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우연한 기회로 찾아온 신선한 자극

집과 소망교도소만 주로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배송철 주임은 집에서부터 근무복을 입고 출근하는 날이 많다. 특별히 옷 입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 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주말을 제외하면 사복을 입는 날이 별로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다고.

“도심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보면서 날마다 다른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게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어요. 물론 그분들은 교통체증이나 인파 가득한 대중교통 없이 오가는 게 부담겠지만, 저는 가끔 도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IT기업에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입어 보고 싶습니다. 또 요즘 날씨도 따뜻하잖아요. 나들이에 어울리는 스타일로도 변신하고 싶었고요. 아내가 똑같은 옷만 대충 입고 다닌다고 핀잔을 하기도 했는데, 변신한 모습을 보면 칭찬을 많이 해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우연한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 소망교도소 최기훈 계장이 배송철 주임을 '나도 패션왕'의 주인공으로 추천한 것. 단조로웠던 일상에 건전하면서도 자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다.

“최기훈 계장님은 직원들에게 좋은 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세요.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교정>에도 좋은 글을 자주 보내시는데, 이번에 저를 추천하셨더라고요. 곧바로 연락이 왔고,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스타일링과는 점점 멀어졌다는 배송철 주임. 전문적인 의상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은 결혼식 이후 오랜만이라 다소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나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으로 임했다.



“일상을 활기차게 만드는 신선한 자극을 얻었어요. 낯설지만 새로운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근력 운동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달리기를 즐기고 있어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요즘에는 에슬레저룩 스타일을 많이 입기도 합니다. 아직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몸이 아니라서 꾸준히 노력하지만, 멋진 몸매를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특히 배는 늘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웃음) 모든 사람이 공감할 거예요. 태가 살려면 배가 검손해야 함어요.”

직접 삶을 변화를 찾아 나서다

완연함 봄을 맞이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전히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전처럼 나들이도 가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기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후유증을 경험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오히려 즐겁습니다. 직장에서의 삶을 제외하고, 주로 어디에 시간을 할애하나 확인해 보니 운동하기, 책 읽기, 글쓰기가 대부분이에요. 집에서 운동하려고 ‘홈짐’까지 꾸며 놓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점점 ‘집콕형’ 인간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없어 보이지만 앞서 말한 일상은 배송철 주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예전부터 글을 쓰는 데 큰 관심을 뒀다고, 책을 많이 읽는 이유도 글을 잘 쓰고 싶어서다.
 “아직 거창하게 말하기는 이르지만 나중에는 꼭 디스토피아, 군사학, SF 등의 주제로 글을 써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책을 펴내는 데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진 만큼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선택한 길

배송철 주임은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정책·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 교정시설과 다르게 민영 교도소에만 존재하는 보직이다. 주로 예산 편성과 법무부와 협력,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최대한의 능력을 펼치려고 노력 중이다.

“어릴 때부터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진로를 한창 고민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읽었죠. 교도관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인데, 그때 교도관이라는 길을 알고 관심이 생겼죠. 때마침 소망교도소 직원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렇게 지원해 지금까지 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교도관이지만, 그의 일상을 들여다 보면 또 다른 매력이 숨어 있다. 평소 운동을 자주 한다는 배송철 주임.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외모와 건강관리에도 힘쓴다.

그것이 궁금하다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인가요?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재미있게 있었어요. 역사 소설인데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큰 사건을 레미제라블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서 큰 감명이 받았습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옳다고 여겨진 것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데님 재킷 & 줄무늬 티셔츠
 밝은색의 데님 재킷으로 완성한 볼나들이룩. 줄무늬 티셔츠와 체크 패턴 셔츠를 덧입어 밝고 젊은 분위기를 강조한다. 주머니가 있는 흰색 바지와 스니커즈를 매치해 발끝까지 경쾌한 느낌을 준다.

교정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길을 찾다

글 한○○



● 용서받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사전 구속에서 이어 수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며 결혼과 승진이라는 목표와 미래를 그려가던 순간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는 달콤한 죄악이 찾아왔습니다. 본전만이라도 되찾겠다는 마음에 헛된 희망을 계속해서 걸었고, 결국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 대출금 그리고 지인들에게 거짓말로 빌린 돈까지 모두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공부했던 경제·금융 그리고 확률에 대한 지식은 '도박'이라는 죄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려줬지만, 당시에는 무엇인가에 홀린 듯 그렇게 저 스스로 돈과 신뢰를 모두 버리고 말았습니다.

● 바보 같은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분들께 물질, 심적 고통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생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도박과 그로 인한 빚이 저의 일상을 무너뜨렸고, 회사 생활에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친구와 동료를 잃었습니다. 잘못된 시작부터 과정에 이르는 순간까지 저의 흐릿했던 시야와 판단은 주변 모든 것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렸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라도 빨리 알려야 했지만, 그때의 상황을 말하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만 들었고, 어떤 대책도 없이 도박의 늪에 더 빠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채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해결책은 도박뿐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 더 큰 피해를 이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빠르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장 용서를 구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에 처했지만, 돌이켜보면 도박을 하고 거짓말과 빚이 늘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아예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며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잘못을 깨달아야 했지만,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을 도박으로 갚으려는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것을 그때는 왜 깨닫지 못했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잃어버린 돈뿐만 아니라 이미 흘러간 시간과 평생을 쌓아온, 하지만 지금은 모래성처럼 무너진 신뢰를 생각하면 지난날의 잘못이 너무나 부끄러우며 피해자분들께 그저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 이제 저에게 남은 길은 저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마친 후 그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가는 것입니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도박으로 인해 제가 더럽혀 온 지난 길을 되돌아보고 잊었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재정립함으로써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도박은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을 더 깨끗하게 닦고, 유지해 금전적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두 용서받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숨은 공로자

글 대구교도소 교위 김현석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교정시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감염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감염 확산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보호를 위해 교정본부 내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집단감염 사태가 시설을 잠식하지 않도록 '소규모 확진자 발생 교정시설'에서는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귀휴, 가석방 등의 형사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원을 제거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자 발생 교정시설'은 격리와 석방 전략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확진자'를 안전한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 밀도를 현저히 낮춰 확보한 유희공간과 신속 준공 후 사용 대기 중인 교정시설에 '감염 확산이 시작된 교정시설의 비확진 수용자'를 이송시켰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했던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축 이전 예정 대구교도소에 서울, 인천, 춘천, 원주, 부산, 대구, 창원, 여주 등 10여 곳에 이르는 '감염 확산 초기 현상을 보인 교정시설'로부터 100여 명에서 수백 명의 '비확진 수용자'를 긴급 수용해 해당 교정시설의 감염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신속한 조치로 대량 급식 문제 해결

이러한 조치 가운데 해당 수용자에 대한 대량 급식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취사 기능이 없는 신축 시설에서 단체 급식을 위해서는 일회용 도시락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구교도소 식품위생주사 양소원, 식품위생주사보 신현기는 대구 및 경북 지역의 급식 공급 업체 7개소를 현장 답사하며 대량 급식 가능 여부, 일 3회 공급 가능 여부, 정시(7:00, 11:30, 16:30) 공급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급식 업체의 위생, 공급 단가, 배달 거리, 음식의 보온은 물론 식단의 적정성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대량 급식이 불가능하거나 위생 불량, 단가 대비 식단 구성 불량 등에 해당하는 일부 업체는 배제하고 적정 업체를 선정해 대량 급식을 공급했다.

구축 대구교도소와 신축 이전 예정 대구교도소(코로나19 관련 긴급수용) 수용자 및 직원의 급식을 위해 끼니별 2,000~3,000개 도시락을 공급하는 상황이 전개됐고, 이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 식품위생 전담 직원들은 기존에 배제



했던 업체들을 다시 방문해 단가 협상을 타결하고, 대량 공급이 불가능한 업체와는 적정 수량 공급을 타결해 분산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대량 공급으로 인해 일부 업체의 도시락이 30분 내지 1시간가량 늦게 도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공급량을 늘리면서 조리, 포장 등의 단계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점심과 저녁 도시락 공급이 지연됐다. 게다가 수용자들은 포장된 일회용 도시락에 쉽게 지치는 현상을 보였다. 국은 식어서 올 수밖에 없었고, 포장 용기의 한계로 밥의 양은 평소보다 적었으며, 무엇보다 포장에 적합한 식단만 반복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식사 공급을 위한 관심과 노력

시설 내에서 일과 대부분을 거실 등 한정된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 폐쇄적이면서도 단순한 생활 패턴의 수용 환경 속에서 식사는 수용자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요소다. 그들에게 식사 의미는 일반인의 식사와 차원이 다르다. 가뜰이나 불만 발생의 우려가 큰 환경에서 도시락 공급 지연은 자칫 수용자의 정서와 수용 질서 관리에 위협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위 식품위생 전담 직원들은 전국적인 범위로 공급하는 편의점 도시락 업체의 대구 지역 총판 담당자와 협상해 점심에 한해 도시락을 공급받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 내 급식 업체들이 아침과 저녁에만 도시락만 공급하게 되자, 준비 시간이 확보되면서 공급 지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일회용 도시락은 평소 식단과 달라 처음 몇 끼 정도는 색다른 맛 덕분에 환영받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따뜻한 국'의 부재, 밥이나 반찬 중 한쪽이 더 많은 현상, 반복되는 식단, 장거리 배달로 생기는 보온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 전담 직원들은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국을 구축 대구교도소에서 끓여 보온통에 담은 후 신축 대구교도소와 긴급 수용 업무를 하는 타 기관 직원에게 공급했다. 인덕선레인지와 솔을 준비해 국을 데워 종종 저녁만국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도시락 취식이 장기화되자 법무부 복지과와 신축 대구교도소에 이입 온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이동식 밥차'를 섭외해 '점심' 한 끼에 한해 제대로 된 식사를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위기에 더욱 빛을 발한 임기응변의 자세

하지만 수용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여기는 것은 '밥의 양'이었다. 대부분의 일회용 도시락은 반찬이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다. 볶음김치를 포함한 2~3종의 야채, 조리된 육류 2~3종 등의 구성이지만, 용기 용량의 한계로 반찬보다 밥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져 직원과 달리 밥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식은 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구매한 라면과 온수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에 위 식품위생 전담 직원들은 수용 관리를 책임지는 보안과와 협의해 '확진되지 않은' 극히 일부의 수용자를 출역시켜(취사장은 수용자의 확진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밥'만 지어 수용동에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렇듯 위기를 넘어 위기가 찾아오는 긴급 상황 속에서도 위 식품위생 전담 직원 두 명은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경의를 표한다.



이승운 방송인 

건강한 웃음을 선사하는 '자연산 헬스보이'



Health

무대를 주름잡던 '몸짱' 개그맨이
중장년의 아이돌로 떠올랐다.
11년째 꾸준히 인기를 이어
오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덕분이다. 스스로도 "자연과
함께했기에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며 너스레를 놓는다.
그래서였을까. 자연이 낳고 기른
'자연산 헬스보이' 이승운과
나는 웃음 속에는 건강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자연 속에서 만난 새로운 나

봄기운이 가득한 어느 날 이승운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찾아온 봄날처럼 화사하고 따스했다. <나는 자연인이다>의 첫 번째 방송에서 이른바 '생선 대가리 카레'와 마주한 직후 보여준 심각함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기분 좋은 표정이었다. 내친김에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 초창기에 대해 묻자, 멋쩍은 미소를 지은 그가 "지금과는 아주 다르죠?"라며 서두를 뱉었다.

"사실 제가 성격이 마냥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때때로 방송에서 예민하고 날카로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자연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마치 날카롭게 깨진 돌맹이가 바람과 파도를 맞아 서서히 둥그런 자갈로 변하는 것처럼, 꼬박 11년 동안 자연 속에서 자연인들을 만나며 모난 부분들이 조금씩 다듬어졌어요. 자연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죠." 이승운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학교'라는 단어로 축약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삶의 교훈으로 치환되기 때문이다. 가장 절절하게 느낀 진리는 '경청의 힘'이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자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 뒤 조언을 전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풀어놓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애잔해진 가슴이 시키는 대로 조용히 한마디를 던진다. "많이 힘드셨어요."

"자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이후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 준 덕분에 어디에서도 꺼내지 못했던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며 한결 후련해 하시더군요. 그런 자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여게 듣고 힘들었던 상황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경청의 자세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죠. 제가 괜히 '자연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개그콘서트>의 '헬스보이'라는 코너가 저를 대중에게 알리는 발판이었다면, <나는 자연인이다>는 저를 사람으로 만든 은인 같은 프로그램인 셈입니다(웃음)."

“후배들이 날개를 펴는 데
제 힘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여전히 꿈틀거리는 개그맨의 본능

삶의 모양이 점점 자연을 닮아 간다지만, 그의 뿌리는 엄연히 KBS 21기 공채 개그맨이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설 무대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개그맨으로서의 뜨거운 피가 혈관을 타고 돌고 있다. 잠시 잠들어 있던 그의 개그 본능은 얼마 전 종영한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 <개승자>에서 다시 빛을 발했다. 그가 이끄는 이승윤팀이 프로그램 내내 1위를 유지하는가 싶더니, 마지막 무대에서 최종 우승으로 화룡점정을 찍은 것. <개그콘서트> 폐지 후 오랜만에 맞본 개그 무대였던 데다가 덤으로 우승까지 차지했으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사실 저희 기수는 <개그콘서트>의 덕을 크게 봤어요. 하지만 개그맨 후배 중에서는 프로그램의 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활동 무대조차 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늘 아쉽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개승자>를 통해 공개 코미디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후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편성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처럼 개그맨들이 사람들을 마음껏 웃길 수 있는 무대가 계속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후배들이 날개를 펴는 데 제 힘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튜브 등 개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후배들을 보고 있다면 대견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건다는 이승윤은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 활동을 예고했다. 자연과 가까이 지내지만 정작 자연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여행 방정식인 캠핑에는 초보인 그가 나 홀로 힐링 캠핑에 도전하는 내용이다.

“채널명조차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영상 한 편을 시험 삼아 찍었는데요.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가 있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서 꾸준히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평생토록 이어질 성실한 도전의 길

2006년에 데뷔했으니 벌써 방송 17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윤의 열정은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캠핑 유튜브 채널 신설 준비는 물론, 발라드 장르인 네 번째 음원 준비에도 한창이다. 2주에 한 번씩, 한 번에 2박 3일 이상이 소요되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촬영하는 발걸음에도 여전히 설렘과 기대가 녹아 있다. 이렇듯 왕성한 활동의 원동력을 물으니 ‘천성’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원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을 즐기는 성격이에요. 개그맨을 하는 와중에 격투기 대회와 보디빌딩 대회에 나간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음원을 벌써 3곡이나 발매한 것도,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런 성향 덕분이죠. 게다가 앞서 말했듯 뭔가를 시작하면 후회가 남지 않을 때까지 해 보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여기에 언제나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가족까지 더해지면 무서울 게 없죠.”

그의 성실함은 ‘좋은 일’이라는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대형 산불 등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과의 상의를 거쳐 능력껏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 이유가 더 많이 기부하고 싶어서라니, 말 다했다.

이승윤은 인터뷰 내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안정과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이 존경스럽다는 이야기가 이어졌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교정공무원들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누구든 나만의 힐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사명감이 있어도 지칠 수 있죠. 저에게는 자연이 곧 힐링인데요. 방방곡곡에서 맑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정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성향에 맞는 힐링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교정공무원에게 기쁨을 드리는 방송인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봄꽃 명소 햇살인 듯, 특

저기 꽃 핀다 꽃 바라. 여기서 특 저기서 특. '저 꽃 보라'며 말하기도 전에 꽃이 또 특 피고, 특 터진다. 그리고 보니 어느새 봄이고 꽃이 폈다. 큰 눈 몇 번에 큰 추위 몇 번을 견뎌 맞은 봄인지. 꽃들 모두 그렇게 저릿하도록 찻던 겨울의 바람을 견뎌 매화가 되고 유채꽃이 되고 벚꽃이 됐다. 마치 겨우내 모아 뒀던 햇살을 터트린 것처럼 눈부신 '빛의 터짐'이다. 4월은 그런 꽃들로 전국이 기분 좋게 소란할 때. 그래서 누구든 꽃 곁에 주저앉아 한눈 쯤 팔다 와도 좋을 때다.

글 사진 이시목여행작가



매화·산수유·진달래 한데 어울린 꽃대궐 서울 종로 창덕궁

서울의 봄은 4월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꽃이 피지 않은 곳이 없고, 보이지 않는 곳이 드물 정도다. 그중에서도 고궁의 4월은 각별하다. 창덕궁과 창경궁의 생강나무를 필두로 경복궁 아미산의 앵두나무가 꽃을 틔우고, 덕수궁 석어당의 살구나무 꽃이 여파란 듯이 또 특 터진다.

창덕궁은 그렇게 고운 4월의 고궁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꽃밭'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은 공간 배치와 건축의 유연함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4월 초·중순엔 그 아름다움에 꽃까지 더해져 장관을 이룬다. 그야말로 '울긁불긋한 꽃 대궐'이다. 상상해 보시라. 굴뚝과 꽃담의 묵은 냄새 사이로 은은한 꽃향기가 변지는 자리다. 그 중심에 매화가 있다. 특히 낙선재 뜰에서 만나는 매화가 곱다.

낙선재의 매화가 밍글이라면, 자시문과 승화루 앞의 매화는 담이다. 겹이 많아 색이 더 화려하고 고운 홍매화가 장관을 이룬다. 그건 말 그대로, 자연이 이룬 '살아 있는 꽃담'이다. 술보다 꽃을 더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비 내리는 날 주점 대신 '매화 피는 날 창덕궁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해봐도 좋겠다.



남산공원의 벚꽃도 흐드러져요



서울 중심에 자리한 남산은 벚꽃 필 무렵 걷기 좋은 곳이다. 추천 산책로는 남측순환로와 북측순환로. 남측순환로는 남산도서관에서 N서울타워까지 약 1.2km(20~30분), 북측순환로는 국립극장에서 옛 백범광장 남산성곽공원 부근까지 약 3km(40~50분)다. 느릿느릿 꽃 보며 걷기엔 넓고 완만한 북측순환로가 낫다. N서울타워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에서도 벚꽃은 주인공이다.



**첫사랑의 애뜻함을 기억나게 하는 곳
인천 강화 고려산**

4월 중·하순의 어느 하늘 맑은 봄날, 어쩌다 이르게 눈 뜬 날이라면 강화에 있는 고려산으로 길을 잡자. 고려산 어귀 부근리에는 수천만 년 세월의 고인돌이 우뚝하고, 산등성이엔 붉은 진달래꽃이 무성하다. 산의 서쪽 끝자락인 낙조봉 정상에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낙조도 펼쳐진다. 그만큼 고운 빛깔의 진달래 군락지(20만여 평)와 경쾌한 조망을 품은 곳이 고려산이다. 그래서일까, 고려산에 오르면 진달래꽃 같았던 첫사랑의 기억이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봄날같이 짝기만 했던 풋사랑이다.

고려산을 오르는 길은 백련사와 청련사, 적석사, 미꾸지고개 네 군데다. 이중 백련사 코스를 이용하면 정상 부근의 진달래 군락지를 비교적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특히 이 코스는 경사가 완만하고 그 길이가 길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백련사에서 정상까지 불과 30여 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등산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진달래 만개 시기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 고인돌 광장에서부터 걸어 올라야 한다. 그래도 1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좋다. 고인돌광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데는 3시간 정도면 되고, 낙조봉을 거쳐 적석사로 내려가는 길은 4시간이면 충분하다. 진달래꽃에 푹 파묻히고 싶다면 봄날의 고려산, 그곳에서 보시라.

고인돌공원도 놓치지 마세요



강화엔 고인돌이 많다. 하점면과 내가면·고려산 기슭에 140여 기의 고인돌이 몰려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고인돌은 부근리 고인돌공원 내에 있는 지석묘(사적 137호)다. 우리나라 최대의 북방식 고인돌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두 개의 괴돌 위에 놓인 덮개돌은 길이 7.1m, 너비 5.5m의 흑요 편마암으로 거대한 몸체와 함께 형태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여 학술적 가치가 높다.

**노란 햇살이 와글와글 특색
충남 서산 유기방가옥**

“엄마~ 자, 옷어보세요. 하나 둘 셋!”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다. 카메라 저편에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어머니를 앉히고, “수선화보다 예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안개 자욱하게 피어올랐던 4월 중순 어느 날의 유기방가옥에서였다.

유기방가옥은 최근 서산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꼽힌다. 100여 년 된 고택 주위로 노란 수선화가 빼곡하게 피어서다. 주인 유기방 씨가 20년 가까이 정성 들여 조성한 꽃밭으로 1,600여㎡에 달한다. 작지 않은 규모라 집 한 채가 고스란히 수선화 꽃밭에 폭 안긴다. 마치 ‘땅 위에 은하수를 옮겨 놓은 듯’ 집 뒤란이며 옆, 앞뜰 전부가 노란 수선화 속이라, 보는 내내 가슴이 달뜩다. 여기에 수선화 꽃밭을 둘러싼 풍경까지 고와 화제다. 꽃밭을 기준으로 뒤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지고, 고택 바로 곁으로는 산수유며 홍매화, 목련꽃이 한창이다. 그 사이로 산책로가 구불구불 지나니, 굽이도는 모퉁이마다에서 수선화를 만난다. 만개 시기는 4월 초·중순이다.

고택 안에서는 간단한 음료도 마실 수 있다. 식혜 한 잔을 들고 고택을 품은 어머니 일대를 둘러봐도 좋고, 마을 입구 정미소를 리모델링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부려 봐도 좋다.

'서산 계국지'를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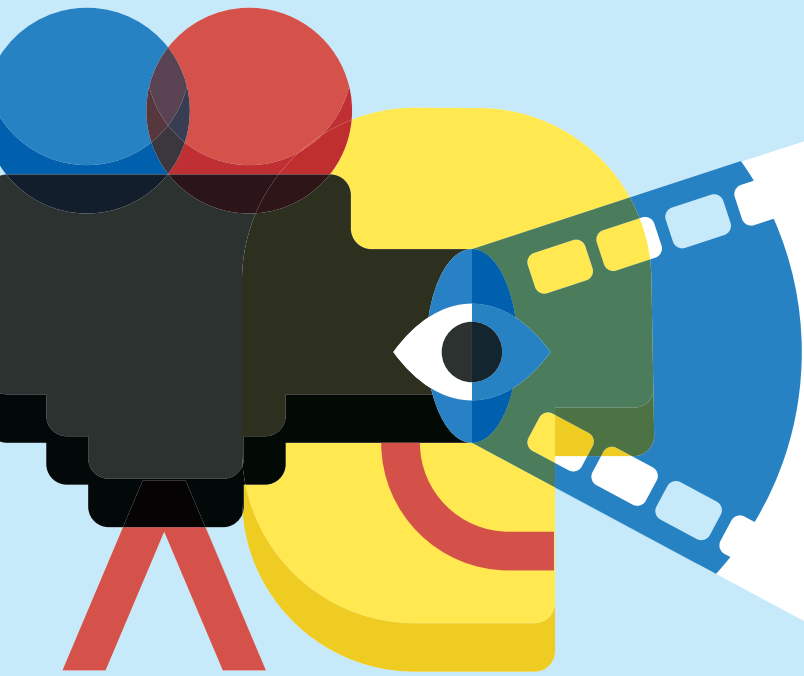


서산은 예부터 별미가 많은 곳이다. 계국지, 우럭전국, 박속밀국낙지탕 등 바다와 갯벌과 산과 들이 고루 발달해 식재료가 풍성했던 덕분이다. 이중 꼭 서산이어야 하는 음식은 계국지다. 계국지는 곰삭은 꽃게장 국물(계국)에 황석어젓, 민물새우 등을 넣어 양념한 김치로 끓여낸 일종의 김치찌개다. 첫 맛은 씹스럽고 짠 편이지만 뒷맛이 개운하고 감칠맛이 남달라 간장게장에 버금가는 ‘밥도둑’으로 불린다.

감염병을 다룬 영화들, 그 특별한 세계 영화가 현실에 시사하는 것들

코로나19는 감염병에 대한 대중들의 감수성을 높여 놓았다. 그간 그저 재난 영화의 하나로 치부됐던 감염병이 창궐해 벌어지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는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그 감흥이 새롭다. 이 영화들은 얼마나 현실을 담아냈고, 그것이 현실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사진 제공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주), (주)아이필름코퍼레이션(주)아이브시네마



〈컨테이션〉, 이게 2011년 작품이라고?

최근 넷플릭스 같은 OTT를 통해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션〉을 접한 분들이라면 이 작품이 2011년에 개봉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 영화 속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이 정확히 코로나19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어서다. 홍콩 출장을 다녀온 후 몸살 증상을 보이던 베스(키네스 팰트로)가 4일째 되는 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사망하고, 그의 아들 클라크 역시 학교에서 돌아와 기침을 시작하더니 손을 쓰지도 못하고 사망한다. 베스의 남편 미치(맷 데이먼)는 줄지에 아내와 아들을 잃었지만 격리된 채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자신이 감염되지 않는 면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뒤늦게 돌아온 딸 조리와 함께 힘겨운 상황을 버텨내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공포에 질린 군중들의 약탈이 자행되는 통제 불능의 팬데믹 상황으로 빠져든다. 바이러스를 연구해 백신을 만들려는 연구자들과 전파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제약회사나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올려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등등. 감염병이 퍼져나가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상

황들이 펼쳐진다.

마치 보고서처럼 며칠째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담담하게 전하는 연출 방식으로 이렇다 할 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지만, 보는 내내 소름이 돋는 건 어떻게 예견했는지 너무나 코로나19 상황과 똑같은 전개들이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감염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그렇고, 바이러스만큼 무서운 사회의 혼돈(사재기나 폭동, 약탈 같은)이나, 이에 대처하는 질병통제 센터가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대목, 또 대중들의 불신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제들까지 영화는 정확하게 8년 후 벌어질 팬데믹 상황을 예측해낸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로서 홍콩의 어느 돼지 축사로 날아든 박쥐를 제시한 것도 놀라운 점이다. 박쥐가 싼 똥을 돼지가 먹고 그 돼지를 사람이 먹는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이 영화의 가설은, 실제로 코로나19가 자연환경이 파괴돼 터전을 잃은 박쥐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로 내려오면서 생겨난 '인수 공통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픽션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에게 하나의 논픽션으로 다가온다. 상당한 취재와 논리적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진 허구였지만, 이제는 팬데믹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담아낸 보고서 같은 작품이 된 것이다.

〈감기〉, 컨트롤 타워 문제에 더 예민한 우리

마치 코로나19를 예견한 듯한 영화 〈컨테이션〉이 시사하는 건, 이 속수무책으로 퍼져나가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를 막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를 돈벌이의 기회로 삼는 이들도 있다는 점이다. 백신을 만들어낸 한 연구원이 자신의 몸에 그걸 주사하고 마스크를 벗은 채 감염된 아버지를 찾는 장면은 그래서 감동적이다. 이 연구원으로부터 시작해 백신이 양산되고 결국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물론 코로나19의 양상은 영화와는 조금 다르다.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줄이거나 감염돼도 증상을 줄일 수 있지만, 아직 100% 감염을 막는 백신은 나오지 않아서다. 대신 경증이 더 많은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가 변이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은 집단 면역의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길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션〉이나 코로나19가 모두 환경 파괴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감염병의 확산이 환경 위기의 징후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은 작품으로 할리우드의 〈컨테이션〉이 있다면, 우리에게 〈감기〉가 있다. 호흡기로 감염되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발생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의 공포를 그린 이 영화는 바이러스 감염이 부르는 혼란의 양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특히 누군가의 재채기 하나로 바이러스를 머금

은 비말이 난사되듯 날아가는 장면은 코로나19를 마주한 우리에게 훨씬 섬뜩한 장면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감기〉가 그리고 있는 진짜 공포의 실체다. 즉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공포는 일차적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서 이 영화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지목한다. 심지어 생존자가 존재하지만 감염됐다는 이유로 종합운동장에 격리된 채 살처분되는 끔찍한 상황들은 물론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투명하지 못한 컨트롤 타워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감염병을 다룬 영화들이 시사하는 것

〈감기〉가 바이러스의 공포보다 컨트롤 타워 부재의 공포에 집중한 건,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대구 지하철 참사(2003)는 물론이고 최근 세월호 참사(2014) 등등 다양한 재난을 겪으면서 생겨난 한국인들 특유의 감수성 때문이다. '한국형 재난영화'들은 그래서 대부분 재난 그 자체만큼 이를 대처하는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지목해 오곤 했다. 예를 들어 〈괴물〉에서 한강에 출몰한 괴물이라는 '재난'에 맞서는 건 결국 딸을 괴물에게 빼앗긴 소시민 박강두네 가족이다. 괴물을 찾아 헤치워야 할 군 병력은 오히려 사람들의 현장 접근을 막고, 정부는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즉 한국형 재난영화로서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혼돈을 다룬 영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재난이 왜 발생하는가'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건 〈컨테이션〉이 제시한 것처럼, 인간의 환경 파괴가 그 주원인이다. 또한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 전 세계인들의 과정을 복기하면 백신 개발과 더불어 마스크 한 장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와 인간의 노력만이 아닌 자연의 선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따라서 감염병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마치 코로나19 상황을 예언이라도 하듯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점에 그다지 놀랄 필요는 없다. 이미 그만큼 우리네 환경문제는 그 논리적 전개가 예상될 만큼 분명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져야 하는 경각심이다. 과연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도 되는 일일까. 눈앞에 도래할 위기가 분명하게 보이는 데도 말이다. 비슷한 취향을 통해 국가를 뛰어넘는 초국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새로운 플랫폼이 과거와는 새로운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고, 그 드라마들이 국가를 뛰어넘는 취향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금 OTT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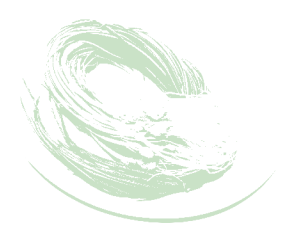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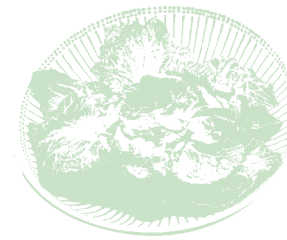
봄을 상징하는 음식

나물



우리나라 사람은 대대로 수많은 식물을 먹어 왔다. 직접 재배하기도 하지만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을 채취해 그대로 먹는다. 이파리부터 줄기, 뿌리, 껍질, 어린순과 싹까지 아주 다양하게 섭취하는데, 그만큼 나물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글. 사진 이우석 농고먹기연구소장



우리 밥상의 대표 반찬

“짚방석 내지 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라, 솔불 켜지 마라, 어제 진 달 돌아 온다. 아해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한석봉으로 알려진 조선 명필 서예가 한호의 시다. 거친 술과 산나물, 즉 박주산채(薄酒山菜)에 산나물이 등장한다. 옛 선비들은 청빈(淸貧)의 상징으로 늘 맨 먼저 나물을 곱았다. 소사채羹(蔬食菜羹·거친 밥과 나물국)이라 부르며 이를 먹고사는 것을 스스로 깨끗하다 여겼다.

하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 나물이다. 안빈낙도라 하기엔 가족에게 많은 고생을 시켰다. 요즘으로 따지면 어렵었다. 과정을 보자. 일단 캐온 나물의 흙을 털어 다듬고 역센 부위를 떼는 등 손이 많이 간다. 역센 나물은 테치거나 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야 한다. 더 역세면 쪼거나 아예 말려 줬다가 써야 한다. 참기름과 들기름, 간장, 된장도 들어가고 때에 따라선 마른 멸치나 고기를 넣어 맛을 더한다.

그대로 무쳐내는 생채(生菜)도 있고 한 번 익혀낸 숙채(熟菜), 말렸다 불려 무치는 건채(乾菜) 등 상태와 종류에 따라 다양한 조리법이 따른다. 게다가 나물은 쉬이 상하는 탓에 보관도 어려워 매일 준비해야 하니 고충이 더하다. 그래서 나물 찬을 상에 많이 내려면 그만큼 숙련된 일손이 필요하다. 이쯤 되면 고급 음식이다.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찬이다. 요즘이라면 선비(공직자 또는 학자)가 나물을 먹고 청빈을 논할 수 있을까?

향긋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별미

봄나물이 밥상에 오르면 어디선가 봄바람이 한바탕 불어오는 느낌이라 기분이 썩 좋다. 소설가 김훈은 봄나물을 찬양했다. ‘언 땅을 뚫고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처음 열룩소를 내미는’ 싹을 시작으로 맛있는 화원(花園)이 온 세상에 펼쳐진다.

채식의 ‘끝판왕’이 나물이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만든다. 푸성귀의 잎사귀나 뿌리, 새순, 심지어 나무껍질까지 채취해 나물로 이용했다. 그 옛날 기근과 수탈로 죽어가던 민초가 목숨줄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봄이면 산과 들에 머위, 시금치, 미나리, 고사리, 쑥, 냉이, 달래, 지청개, 망초 등이 돌아나고 땅속의 쉼, 도라지,

우엉에는 단맛이 든다.

나무엔 참두릅, 엄나무 순(개두릅), 옷 순, 참죽(가죽)이 돌아나고 껍질은 가시오갈피 등이 있어 이를 뜯고 벗겨 나물을 해 먹었다. 마땅한 곡식이 없을 시기에 나물로 주린 배와 영양을 채웠다. 봄나물엔 영양이 많다. 비타민과 섬유소가 많아 건강 식재료다. 나물 중에는 약초로 치는 것도 많다. 어찌면 당시 부잣집 머슴 보리밥보다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초근목피를 먹고도 어쨌든 건강하게 살아남은 이유다.

한상차림의 진짜 주인공은 나물

나물은 한식 상차림의 구성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찬의 형식이다. 경작하거나 채취한 채소나 해초, 나무껍질, 뿌리 등 다양한 재료와 요리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물 찬 숨씨는 대물림이요, 손맛이 전해진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한, 대부분 식용식물은 나물 재료가 된다. 김치나 국거리로 쓰는 주요 작물의 잎사귀나 열매를 이용한 나머지도 나물로 쓴다. 무청 시래기가 대표적이다. 무는 무대로 썰어 무나물, 무생채 등을 만들고, 무청 시래기는 한번 말렸다 삶아서 이용한다. 고사리, 고구마 줄기, 토란대 등은 줄기를 쓰는 경우다. 뿌리를 쓸 때도 있다. 도라지나 우엉은 뿌리만, 냉이와 달래는 잎사귀와 뿌리를 한꺼번에 무쳐 나물로 내기도 한다.

식용식물의 종류는 한식 상차림에서 제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민들레와 천문동도 무쳐 먹는다. 먹기에 썩 좋지 않으면 말려서 먹고, 삶고 찢어서 먹는다. 한국인이 먹지 않는 식물은 독초거나, 잔디처럼 아무 맛이 없는, 그냥 ‘풀’일 뿐이다. 산과 들의 나물을 캐 먹다가 그 맛이 좋으면 작물로 삼아 기르기도 한다. 명이나물(산마늘)이나 냉이, 달래, 참죽(가죽), 비름 등이 그런 과정을 거쳐 농산물이 됐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역시 복합미(複合味)를 선호하는 한국인은 사발에 밥과 나물을 한데 넣고 쓱쓱 비벼 먹길 즐긴다. 달콤하면서 씹싸름한 맛을 내는 나물이 고추장이나 참기름, 간장의 맛과 어우러진다. 요즘처럼 화창한 주말이면 산자락 나물밥 식당이 그득득 찬다. 반가운 봄나물을 돌아나게 한 따스한 별이 고마운 나날이다.

미국의 교정시설 COVID-19 대응 관련 한계 및 쟁점②

목차

- I. 서론
- II. 국제사회의 교정시설 감염질환 관련 준칙
 - 1.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상 규정
 - 2. WHO의 교정시설 COVID-19 관련 규정
 - 3. 소결
- III. 미국 교정시설 COVID-19 대응 실태
 - 1. 미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
 - 2. COVID-19 백신정책
- IV. 미국 교정시설 COVID-19 대응 관련 한계 및 쟁점
 - 1. 극단적인 구금처우와 과밀 수용: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작동
 - 2. 형사사법정책과 보건정책의 부조화 문제
 - 3. 교정직원과 수용자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의 문제
 - 4. 보건의료지침의 비준수와 비체계적인 대응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히경미*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kmhuh@kmu.ac.kr)
 • 접수일(2021. 11. 20.), 심사일(2021. 12. 16.), 수정일(2021. 12. 17.), 게재확정일(2021. 12. 28.)

III. 미국의 교정시설 COVID-19 대응 실태

1. 미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관한 법적 근거

2) COVID-19 관련 대응 지침

미국 연방교정국(The Federal Bureau of Prisons: BOP)은 주요 비상사태 또는 기타 정상적인 운영 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직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운영연속성계획」(continuity of operations plans)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에는 폭동 또는 화재진압, 자연재해 또는 폭발 시 대응 또는 COVID-19와 같은 기타 중대한 비상 상황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 비상계획에는 지휘요원 지정, 상황통제, 지역당국 통지 및 협력, 임시 및 후속 의료제공,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 포함된다. 연방교정국은 이 「운영연속성계획」을 바탕으로 COVID-19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Federal Bureau of Prisons, 2021).

BOP는 세계보건기구(WHO), 질병통제센터(CDC), 인사관리국(OPM), 법무부, OSHA¹⁾ 등의 지침과 지시를 반영해 2020년 1월 31일에 최초로 COVID-19 대응 지침을 교정시설에 전달했다. 이후 이를 보완해 2020년 3월 23일 자로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서 COVID-19 관리에 관한 지침(the Guidance on Manage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Correctional and Detention Facilities)을 발표했고, 이것은 2020년 7월 14일 자, 2020년 11월 25일 자 등으로 후속 지침이 발표됐다(BOP, 2020).



BOP는 이 운영지침을 통해 모든 교정시설은 COVID-19의 요격리율, 직원과 수용자의 접촉률, 해당 지역사회 전파율 등을 기준으로 시설의 운영단계를 1, 2, 3단계(Levels 1²⁾, Levels 2, Levels 3)로 분류토록 하고, 단계별 운영지침을 제시했다. BOP가 2020년 11월 25일 자로 제시한 모든 교정시설에 적용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COVID-19 백신정책

BOP는 CDC와 협력해 2021년 1월 22일 백신지침(COVID-19 Vaccine Guidance)을 만들었다(Bureau of Prisons, 2021). 이 백신지침은 백신종류와 접종 가능한 연령대와 횟수, 우선순위(Priority Level)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정시설의 의료전문가가 교정직원 및 수용자들에게 접종토록 가이드 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백신지침에 따르면 백신은 CDC가 보급하며, 1차 접종 대상자는 교정공무원과 의료인이며, 이는 이들이 지역사회와 교정시설 그리고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COVID-19 감염매개체가 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Bureau of Prisons, 2021). 수용자에게 이 지침을 적용하되 백신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 발병 이력, 수용시설의 환경 및 개별 임상 요인 등을 시설에서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우선 접종 대상자는 COVID-19의 감염, 노출 등으로 격리된 수용자로 격리기간과 장소를 접종 기회로 삼도록 했다. 또한 석방이나 이송 대상 수용자의 경우로 이들이 지역사회나 타 교정시설에의 감염위험인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석방 대상자의 경우 이들이 교정시설에서 1차 및 2차 백신

〈표 3〉 연방교정국(BOP)의 교정시설 운영지침

구분	주요내용
외부인과의 면회	기존 금지됐던 외부인 면회를 허용하되 인원과 시간제한, 거리두기(6피트 이상), 칸막이나 유리창 면회, 면회실 방역,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을 갖춰 교정시설의 재량 하에 실시.
법률지원	전화통화 및 화상통화는 가능한 허용, 변호사 대면은 마스크 착용 등 지침을 준수하며 허용.
일상생활	수용자 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되, 급식 서비스와 같은 필수 업무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계속 운영, 개별 수용자는 물품 배급소, 빨래, 주 3회 샤워, 변호사 법률지원, 전화, 의료, 상담 등에만 이동 허용, 일부 교정시설 작업장(UNICOR)도 허용.
프로그램 운영	First Step Act ³⁾ 에 따른 재범 감소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은 가능한 필수적으로 운영하되, COVID-19 확진 상황에 따라 예외 가능.
시설 입소	교정시설 간 이송 혹은 신규입소 모든 수용자는 COVID-19 검사를 받도록 하며, 양성 반응을 보이는 수용자는 의료 격리. 무증상이면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최소 14일 동안 검역소에 머물게 된다. 14일 후 PCR 검사 후 음성이면 일반 수용실로 배치되며, 양성인 경우 의료 격리.
석방/이송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나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운송 수단에 탑승치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OVID-19 이력이 없는 경우는 승인된 COVID-19 테스트 후 음성일 때 14일 동안 석방/이동 검역소에 배치되며, 14일 후 재테스트 후 음성일 경우 석방/이송할 수 있다.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회복돼 90일을 경과하고 격리 해제기준을 충족시 석방/이송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즉시 석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일 증상 선별, 체온측정 및 신속한 테스트 후 출발 및 도착 지역의 보건당국에 통보하며, 운송 중 또는 도착 시 검역 또는 격리 조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일정을 조정한다. ⁴⁾
자원봉사	외부 자원봉사 중 종교 및 상담 관련 자원봉사 이외의 방문은 제한된다. ⁵⁾
교정시설 견학	모든 교정시설의 견학 및 참관 등은 중단된다.
교정직원 훈련	모든 교정직원의 대면교육 및 훈련은 중단된다.
출입심사	모든 교정시설의 모든 방문자, 모든 직원은 체온검사를 하며, 38° 이상인 경우 건물진입이 거부된다. ⁶⁾
직원여행	모든 교정직원의 여행은 일정기간 동안 금지된다.

자료: Bureau of Prisons, 2020. 재구성.

1)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은 미국 연방 노동부 산하기관이며, 작업장을 방문해 근로현장의 산업재해 및 안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OSHA는 교정시설을 포함해 전 산업장 근로자의 안전 지침(Protecting Workers: Guidance on Mitigating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Workplace)을 2021년 1월 29일, 2021년 6월 10일 업데이트 버전, 2021년 8월 13일 업데이트 버전 등을 발표하고 있다(OSHA, <https://han.g/MWbM6/> 2021. 10. 10).

2) BOP는 각 교정시설의 분류 기준을 1단계는 지난 7일 동안 의료 격리율 2% 미만이고, 시설 예방 접촉률 65% 이상, 지역사회 전파율이 100,000명당 50명 미만인 경우, 2단계는 지난 7일 동안 의료 격리율 2% 이상 7% 미만이거나, 시설 예방 접촉률이 50% 이상 65% 미만이거나, 지역사회 전파율이 100,000명당 50명에서 99명 사이인 경우, 3단계는 지난 7일 동안 의료 격리율이 7% 이상이거나 시설 예방 접촉률이 50% 미만이거나, 지역사회 전파율이 100,000명당 100명 이상인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9월 24일 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운영지침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교정시설은 1단계는 없고, 2단계 3개소, 3단계 95개소로 나타났다(BOP BOP COVID-19 Operational Levels, <https://han.g/G5H0y/> 2021. 9. 24).

3) First Step Act (FSA) of 2018 (P.L. 115- 391)은 2018년 12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형사사법정책 특히 교정 및 보호관찰 영역의 제도를 개선하고, 수용자의 재범을 감소시켜 교도소 과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재범성 진단 및 수용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 및 재활훈련, 교육, 지역사회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교정시설에서 운영토록 했고, 이를 통해 수용자들은 매년 54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포인트일 만큼 일찍 출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Samuels, & Tiry(2021).

4) BOP는 이에 대한 지침으로 Coronavirus(COVID-19) Resumption of Normal RRC Operations를 제시했다.

5) BOP는 이에 대한 지침으로 COVID-19 Visitor/Volunteer/Contractor Screening Tool과 Coronavirus (COVID-19) Religious Accommodations를 제시했다.

6) BOP는 이에 대한 지침으로 COVID-19 Inmate Screening Tool과 COVID-19 Staff Screening Tool을 제시했다.

〈표 4〉 미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백신접종 우선순위(Priority Level)

접종순위	대상자
1순위	교정의료시설에 배치된 보조인력 수용자 및 장기 수용자 의료요양시설이나 주거의료교정시설의 수용자
2순위	65세 이상 수용자 암질환, 만성신장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다운 증후군,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또는 심근병증과 같은 심장 질환, 고형 장기 이식으로 인한 면역 저하 상태, 비만(체질량 지수[BMI] 30kg/m2 이상), 겸상 적혈구 질환, 흡연자(현재 및 과거 흡연자 포함), 제2형 당뇨병, 임신 등의 수용자
3순위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수용자 COVID-19로 인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정 기저 질환. 즉 천식(중등도에서 중증), 뇌혈관 질환(혈관 및 뇌로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침) 낭포성 섬유증, 고혈압, 혈액 또는 골수 이식으로 인한 면역 저하 상태, 면역 결핍, HIV,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또는 기타 면역 약화 약물 사용,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간 질환, 과체중(BMI 25kg/m2 초과 30kg/m2 미만), 폐 섬유증(폐 조직이 손상되거나 흉터가 있음), 지중해빈혈, 제1형 당뇨병 등의 모든 연령대 수용자
4순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된 후 남아있는 모든 수용자

자료: Bureau of Prisons, 2021. 재구성.

접종을 모두 마쳐야 하며, 연속해서 2회 접종을 할 시간 여유가 없거나. 이들이 출소하는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접종받을 형편이 안되는 경우 1차 접종도 제한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용자의 백신접종 우선순위(Priority Level)는 〈표 4〉와 같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BOP의 전자자유기록(BEMR) 및 CDC의 지침을 사용해 해당조건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식별, 접종 대상자 순위를 분류토록 했다(Bureau of Prisons, 2021).⁷⁾

〈표 5〉 미국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변화

구분	2019	2020.6	2021.3	2019-2021		2020-2021	
총계	2,115,000	1,816,300	1,774,900	-340,000	-16%	-41,400	-2%
Prison	1,435,500	1,309,500	1,193,900	-241,600	-17	-115,600	-9
Jail	758,400	573,400	647,200	-111,200	-15	73,800	13
urban	166,979	127,100	147,200	-19,779	-12	20,100	16
suburban	146,976	116,800	132,600	-14,376	-10	15,800	14
small/midsizemetro	260,169	208,400	-27,369	232,800	-11	24,400	12
rural	184,295	121,200	134,500	-49,795	-27	13,300	11

자료: Kang-Brown, Montagnet, & Heiss, 2021, 재구성.

7) BOP는 2021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237192회 접종분량을 CDC로부터 보급받아 225,251회 분량 백신을 투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BOP, <https://www.bop.gov/coronavirus/index.jsp/> 2021. 9. 24).

8) 이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 수 즉 수감률이 가장 높은 10개국은 미국 (639), 엘살바도르 (566), 투르크메니스탄 (552), 태국 (549), 팔라우 (522), 르완다 (511), 쿠바 (510), 몰디브 (499), 바하마 (442), 그레나다 (429) 등으로 나타났다(World Population Review, 2021).

IV. 미국의 COVID-19 대응 관련 한계 및 쟁점

1. 극단적인 구금처우와 과밀 수용: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작동

2019년 말부터 번지기 시작한 COVID-19가 교정시설에서도 발견되면서 과밀수용이 감염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에 BOP를 포함해 주정부들도 수용자 석방을 서둘렀다. 결국 2020년 상반기에 수용자는 210만여 명에서 180만여 명으로 14% 감소했지만 이후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봄까지 수용자 감소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2020년 수용자 석방률이 낮고 투옥률이 높은 주정부의 경우 2021년까지 그렇지 않은 주정부들 보다 수감률을 낮추려는 노력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Brown, Montagnet, & Heiss, 2021).

연방 수준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난민구금자 수는 2019년 구금인구의 3분의 1이었지만, 연방보안관실(USMS)의 수용자는 계속 높은 구금률을 유지했다. 연방교도소만 살펴보면 2019년 말과 2021년 봄 사이에 약 144만 명에서 119만 명으로 총 17% 감소했다. 지방교도소의 경우에는 COVID-19 초기에 급격한 수용인구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결국 미국은 COVID-19로 인해 교정시설 수감률이 지난 20년 만에 가장 낮아지긴 했으나, 인구 10만 명당 수용자는 639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는 세계 수용인구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다(World Population Review, 2021).⁸⁾

또한 교도소소송개혁법(PLRA)으로 수용자들의 의료소송권을 제한시키고 연방수용자의료본인부담금법(FPHCCA)으로 수용자에게 의료부담금을 지

불토록 하고, 오바마케어법으로 석방수용자의 의료비를 지방정부가 지불토록 하는 부담을 지웠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수용자의 적극적인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 방문을 위축시켰고, 지방정부는 수용자 석방을 소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COVID-19 감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riharan, 2020).

2. 형사사법정책과 보건정책의 부조화 문제

COVID-19 팬데믹이 심각해지자 교정시설의 수용자 석방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1). 뉴저지주의 경우 2020년 주보건법(S2519)을 개정해 3,000여 명을 석방시켰고, 오클라호마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 및 감형권(Governor executive orders and commutations)을 활용해 수용자를 석방했다. 연방교정국은 연방보호관찰위원회와 연계해 행정성적이 양호한 24,000여 명의 수용자들을 가택구금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또한 주법원 및 연방대법원은 장기수용자 및 고령수용자 등에 대한 석방명령(court orders)을 내렸고, 교정시설은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조치를 별도로 취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노출됐다. 첫째,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석방 수용자에 대해 교도소 복귀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했다. 이는 〈표 5〉에서도 확인되는데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역 교도소 수용인구는 13%, 73,800여 명이 증가했다. 석방 수용자에 대한 복귀명령은 첫번째단계법(First Step Act: FSA)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며, 수용 과밀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수용자 감염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Scott-Hayward, 2021).

둘째, 감소했던 농촌지역 교도소 수용인구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즉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농촌지역 수용인구는 2019년 중반에서 2020년 사이에 63,100여 명, 34%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초까지 농촌지역 수용인구는 11%, 13,300여 명이 증가했다. 결국 2021년 3월경 농촌지역 수용인구비는 도시 교도소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범죄인 구금정책이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Pearson, 2021).

또한 〈표 5〉에서 2020-2021년의 경우 지방교도소 인구 증가와 연방교도소의 수용인구 감소추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재판할 거쳐 연방교도소로 이송돼야 할 연방범죄자들에게 연방교도소로의 이송을 중지하거나 법원의 재판중단 등으로 인해 지방교도소에 그대로 잔류 수용되는 경우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가 작은 지방교도소의 경우 제한된 의료시설과 지역 사회의 의료지원 등을 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COVID-19 감염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규모가 작은 소도시나 농촌지역에

9)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미국으로 허가없이 진입한 난민들을 심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들을 구금 보호하는 난민구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거주하는 교정직원이 적절한 임상 격리 등을 거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감염돼 교정시설 동료 및 수용자에게 감염매개체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확인됐다(Sims, Foltz, & Skidmore, 2021).

셋째, COVID-19 팬데믹 동안 교정당국이 석방한 수용자 간 인종별 차이가 현격해 차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즉, 2019년 이후 COVID-19 팬데믹 동안 2020년까지 흑인의 수감률은 22%, 라틴계 사람들의 수감률은 23%,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감률은 21% 정도 감소한 데 비해 백인의 수감률이 2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형사사법기관의 차별적 법적용과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유색인종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trassle, & Berkman, 2020).

3. 교정직원과 수용자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의 문제

2021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연방정부 교정국 산하의 교정시설과 이민세관집행국 및 주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산하의 교정시설 등에서 발생한 COVID-19 감염자 및 사망자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미국 연방 및 지방정부의 교정시설 등의 COVID-19 감염 현황

구분	감염 수용자	사망 수용자	감염 직원	사망 직원
BOP	44,447	265	8,077	6
ICE ⁹⁾	27,908	10	45	-
State	353,218	2,318	104,962	206
National Total	425,573	2,593	113,084	212

자료: covid prison project, 2021.

연방정부의 교정시설 COVID-19 감염수용자는 44,447명이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감염자의 0.60% 정도가 사망했다. 연방교정직원은 8,077명이



감염, 사망자는 6명으로 0.07% 정도가 사망해 수용자의 사망률이 직원보다 9배 정도 높다. 또한 BOP 교정시설의 수용자 1,000명당 COVID-19 감염률은 291.9명이고, 연방교정직원은 209.38명으로 수용자 감염률이 직원보다 28.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vid prison project, 2021).

이에 비해 주정부 교정시설(state jail)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교정시설(urban-suburban-small/mid size metro-rural jail)의 감염수용자는 353,218명이고 이 가운데 2,318명이 사망해 0.66% 정도의 사망률을 보였다. 감염 직원은 104,962명이고 206명이 사망, 0.20% 정도의 사망률을 나타냈고, 감염직원 보다 감염수용자의 사망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교정시설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의 사망률이 직원의 사망률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BOP의 COVID-19 대응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WHO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 및 손 세정제 등을 지급하고 일정한 거리두기를 요구했으나 교정당국이 이를 권고로만 인식하고 그 실천을 강제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비판과 진단이 잇달았다(prison policy, 2021; new york times, 2021). 나아가 감염직원과 감염수용자 간 지원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과 기회의 차이 즉, 의료형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BOP의 지침 및 WHO의 매뉴얼 특히 유엔피구금자치제기준규칙등에서 수용자에게 지원되는 의료서비스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BOP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초기부터 수용자 간 거리두기 및 감염수용자의 14일간 의료 격리 등이 무시돼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진단이다(Okonkwo, et al. 2021).

4. 보건의료지침의 비준수와 비체계적인 대응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BOP는 COVID-19 관련 지침을 통해 교정시설관리 및 교도관과 수용자 등의 보건위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COVID-19 감염 확산이 진행된 단계에서 제공됐고,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교도관과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나 손 세정제가 적절하게 보급되지 못했으며, 일부 과밀하기 극심한 일부 교도소에서는 일인용 수용실에 3-4명을 함께 수용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일부 교정시설은 응급의료실이 부족하자 감염 수용자를 동료 수용자들과 함께 거실수용 후 보살피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같이 각 주정부 및 지역교정시설별 대응은 체계적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 COVID-19 감염교도관과 수용자가 폭증하는 원인이 됐다(the conversation, 2021).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교정시설의 감염병 확산에 교도관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교도관에 의한 교정시설 감염 차단에 실패했다(Kang-Brown, Montagnet, & Heiss, 2021). BOP는 지역사회 감염률과 교도관의 감염률이 높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감염률이 그렇지 않은 시설보다 더 높은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교도관과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보급이 일반인들에 비해 늦게 진행됐고, 그마저도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이 늦어졌다. 특히 BOP가 2021년 1월 제공한 백신 지침을 통해 수용자보다 먼저 백신접종을 받게 된 교도관들이 접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로 인해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이 동시에 지연되는 등 BOP의 지침이 현장에서 반영되지 못했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1). 더욱이 BOP가 2020년 11월에 제공한 지침에서 교정시설의 작업장(UNICOR)¹⁰⁾을 정상 운영토록 함으로써 수용노동자들의 집단감염을 촉발시켰고, 지역사회로까지 감염이 전파됐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The Marshall Project, 2020). 그런데 BOP의 이 지침은 WHO가 제시한 단계별 감염예방및통제(IPC)를 반영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초기부터 호흡기질환으로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한 예방조치로 강조됐지만, BOP의 지침은 매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V. 시사점 및 결론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인권을 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지만, COVID-19 상황에서 보인 미국 교정당국의 대응은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BOP의 대응 지침과 수용자의 자비석방과 가석방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으로 인한 사망 수용자가 2500여 명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COVID-19 대응 문제점을 들어 기관경고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한겨레, 2021).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할 때 미국 교정시설의 COVID-19 대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용인구비와 세계 교정인구의 25%를 점하는 미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는 유엔피구금자치제기준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수용자 위생, 폭력, 부실한 급식 문제 등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나아가 교정시설 과밀화는 기존의 문제들을 넘어서 COVID-19 집단감염을 촉발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이미 서울동부구치소의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둘째, 미국의 엄격한 무관용주의와 구금주의 모토가 수용자의 COVID-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삼진아웃법, 절대형기제 등으로 구금형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고, 그 결과로 세계 최대 수용인구를 유지해왔다. 이는 교정비용의 막대한 지출은 물론이고 범죄경력자를 양산했으며, 급기야는 COVID-19 팬데믹에서 이들을 자비석방이라는 명목으로 석방해 가택구금에 처하는 지경까지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자유형의 형량을 늘리는 한국에서도 그것이 과연 적절한 형사정책 방향인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종구, 2021). 특히 장기구금형은 수용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하고 노인수용자의 생물학적 특성상 만성적 질병과 COVID-19와 같은 질환에 감염위험이 더 높고 결국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미국 교정시설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방교정국은 CDC, OSHA 등의 응급의료지침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말에 교정시설 COVID-19 대응 지침을 제시했으나 이미 COVID-19 집단감염 현상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나아가 교정시설 과밀화로 감염자 의료 격리나 접촉자의 임상 격리, 수용자 간 거리두기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고, 전문 의료진과 의료시설 등의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교정직원이나 수용자들이 COVID-19에 노출됐다. 교정시설의 의료인프라 부족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향후 COVID-19와 같은 전파력이 강한 감염질환을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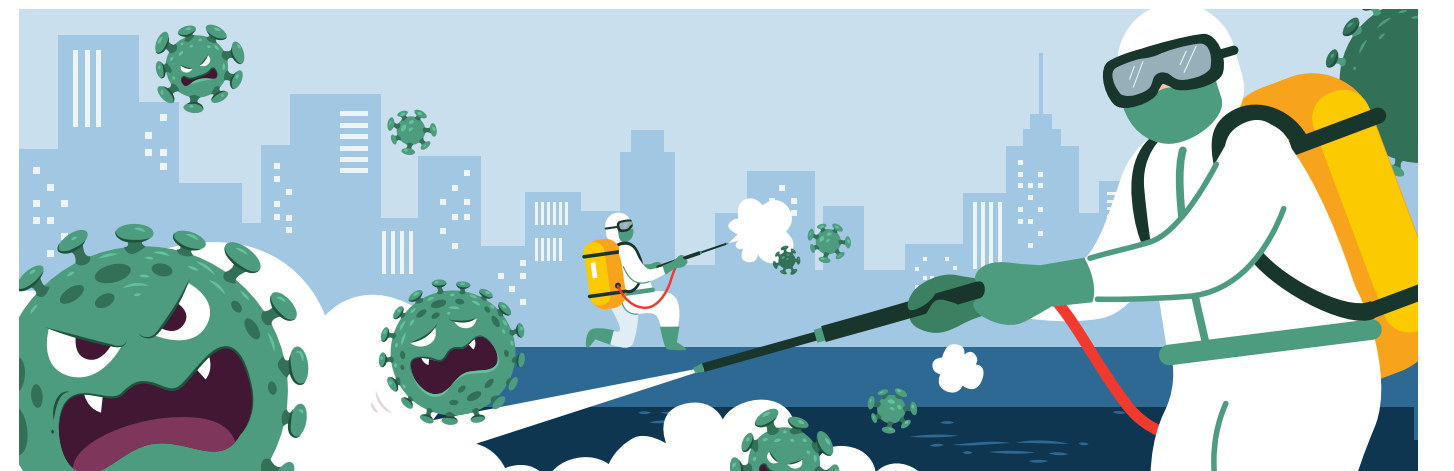
넷째, 연방교정국과 지방정부 및 보건당국의 COVID-19 대응이 체계적 일관성을 갖추지 못했다. 연방교정국의 대응 지침은 미국의 복잡한 관할권과 교정시스템 등으로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jail)의 경우 주지사나 시장 등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의지에 따라 수용자의 자비석방이나 임상 격리 대상자 선정기준, 기간 등의 차이가 발생했다.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용자의 교정시설 간 이송과 격리조치 없는 지역사회 석방, 신규 수용자 입소 등이 진행됐

다. 이러한 것들이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 감염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침과 시행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다섯째, 법원과 보호관찰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중단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수용자 석방을 확대시키려면 법원의 미결수 석방명령, 보호관찰위원회의 심사 및 가석방위원회의 석방결정명령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지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용인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방교정시설의 경우 조기출소 석방명령이나 가택구금명령 대상자들을 다시 교정시설로 복귀토록 함으로써 2021년 이후 수용인구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이 구금 우선주의적 교정처우이념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섯째, 현행 첫번째단계법(FSA)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역사회 복귀지원프로그램 체제가 정비돼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위원회나 가석방위원회의 심사중단 등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출소자를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와 출소자의 재발을 돕는다는 이 법 본래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 다행히 미국 상원에서도 문제를 개선키 위해 첫번째단계시행법(First Step Implementation Act of 2021)으로 구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govinfo, 2021).

일곱째,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처우는 국가가 부담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확인시킨 연방대법원의 에스텔 대 갬블(1976) 판례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의무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교도소소송개혁법(PLRA), 연방수용자의료본인부담금법(FPHCCA) 등의 제정으로 수용자에게 의료비용을 부담시켜 의료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의료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취해왔다. 그리고 이는 COVID-19와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질병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교정시설 의료예산 총량제를 포함한 수용자의료처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정비가 필요하다.



10) UNICOR은 1934년에 연방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정부기업인 연방교정기업(Federal Prison Industries: FPI)가 판매하는 상품명으로 100여개의 물건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방교정시설 수용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노동자(labor)로 선발돼 작업하며, 시간당 23¢에서 \$1.15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과 함께 수용자 직업훈련 차원의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이 맞서고 있다(Cao, 2019).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일자-장소

• 3. 3.(목) 안양교도소 / 3. 3.(목), 3. 8.(화) 서울구치소 / 3. 31.(목) 천안개방교도소

주요 내용

교정기관 코로나19 방역실태 등 현장점검

교정공무원 자기계발 e-러닝 교육 제휴(3.18.)



제휴 업체

• 에듀스파(박문각), 챔프스터디(해커스)

제휴 기간

'22. 3. 19. ~ '23. 3. 18.(1년)

제휴 내용

• 에듀스파(박문각) :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90여 개 과정
• 챔프스터디(해커스)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30여 개 과정

제3회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일자-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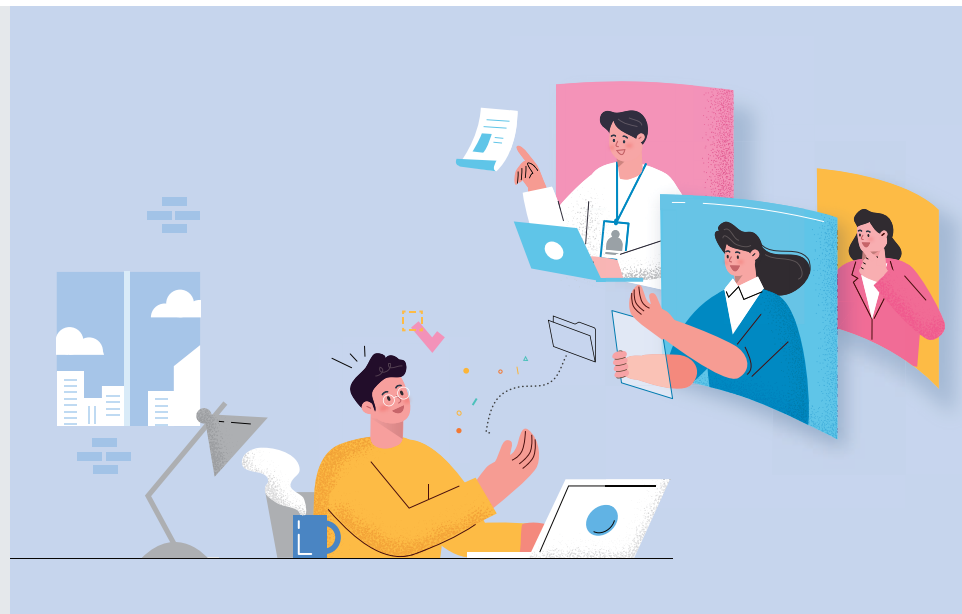
• 3. 4.(금) 15:00, 교정본부 회의실

참석자

교정본부장, 교정·보안단장, 본부 각 과장, 지방교정청장, 교정연수부장, 교정기관장 등

주요 내용

고위험군 중점 관리 등 오미크론 확산 대응 방안 논의 등



분류심사·가석방 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3. 29.)



배부처

54개 교정기관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분류심사	- 분류심사 제도 의미, 절차 - 신입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 분류심사 종류
가석방	- 가석방 제도 의미, 절차 - 가석방 실시일(정기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유의사항

활용 계획

• 교정시설 수용동 및 민원실 비치
• 교정본부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 게시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3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신경우 청장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 전문가 되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코로나19 대응 직원 포상

서울구치소는 3월 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한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특별 포상을 실시했다. 유태오 소장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고, 특히 방역 직원들을 응원하고 싶다”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안양교도소는 3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재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는 미결수용자, 1년 미만 징역·금고형 수용자 등 334명이 참여했으며, 공정한 투표 환경 조성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중점을 뒀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코로나19 PCR 검사 업무협약

수원구치소는 3월 18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동수원병원과 ‘직원 PCR 검사’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앞으로 수원구치소 직원은 현장 감염 위험도가 낮은 동수원병원 내 별도의 검사 창구에

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PCR 검사 후 3시간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수용자 물품 기증

서울동부구치소는 3월 8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 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수용자들을 위한 간식으로 과자 2,200세트를 기부받았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인천구치소 / 교사 이남웅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

인천구치소는 3월 2일 코로나19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서 지원 받은 생필품 및 커피라면 등을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외에도 직원식당 특식 제공 및 과별 간식 제공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수용자 물품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3월 10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사랑의 온정이 담긴 1,480만 원 상당의 과자 꾸러미 1,850개 기부받았다. 이날 기부는 기관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힘들어하는 수용자의 위로를 위해 마련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학생 장학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17일 지역사회 초·중·고등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장학증서를 발송해 해당 학교에서 전수했고, 장학금은 선발 장학생 보호자의 계좌로 전달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수용자 물품 기증

의정부교도소는 3월 14일 화성시 서봉사의 운천스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장기간 처우가 제한돼 지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한 빵 1,500개를 기부받았다. 신동윤 소장은 “수용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운천스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수용자 물품 기증

여주교도소는 3월 23일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와 국군위문예술단으로부터 코로나19로 지친 수용자를 위로하는 떡 5,000인분을 기부받았다. 최진규 소장은 “직원 및 수용자의 합심과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안정화와 기관 정상 운영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3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거소투표는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수용자 182명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춘천교도소는 3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

표용지를 받아 총 208명의 수용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김현우 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부조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원주교도소는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1분기 부조리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청렴한 교정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맑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분기마다 법무샘 메일로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강릉교도소는 3월 3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수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진행했다. 수용자들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스스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성실히 수행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모범 교정공무원 표창

영월교도소는 3월 14일 모범 직원 표창식을 진행했다. 이날 교위 최명종 등 6명의 직원이 모범직원 표창장을 받았으며,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상자 이외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3월 2일 17명의 수용자가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제20대 대통령 선거 수용자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거소투표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의 입회 아래 정확한 신원 대조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진행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3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재·보궐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모든 선거 과정에서 거소투표 대상자 53명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하게 선거 업무를 수행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코로나19 방역 물품 기증

소망교도소는 3월 28일 사랑나눔재단에서 마련한 코로나19 방호복 1,000벌을 기증받았다. 사랑나눔재단은 소망교도소에서 직원과 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방호복을 전달했다.

부산구치소 / 교위 이승훈

수용자 물품 기증

부산구치소 3월 22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빵과 오렌지주스 각 1,8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교정협의회 박준희(아이넷방송 회장)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금과 물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홍성진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3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수용자 3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자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이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수용자 물품 기증

창원교도소는 3월 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코로나19 극복 특식 떡과 2L 생수 각 1,300여 개를 전달받았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은 “코로나19로 접견 및 식품 구매가 일부 제한된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특식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광민

보안과 송무팀 사무실 개소식

대구지방교정청은 3월 18일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사무공간 확장을 위해 대구청사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사무실을 추가 배정받았다. 구지서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송무팀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업무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봄맞이 쿠키데이 행사

대구교도소는 3월 14일 봄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여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봄맞이 쿠키데이 행사를 마련하고, 쿠키를 지급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부산교도소는 3월 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수용자 85명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개시 전 분무 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을 실시했으며,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치러졌다.

포항교도소 / 교사 송호진

수용자 물품 기증

포항교도소는 3월 14일 포항지역 웨딩 업체 (취청술밭(대표 이경하)으로부터 떡 2,800개를 기증받았다. 김철민 소장은 (취청술밭의 떡 기증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정적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진주교도소는 3월 3일 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소 설치를 시작으로 수용자 74명이 거소투표를 실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용자의 참정권을 보장했다. 거소투표 신청기간 이후 입소자 3명은 3월 4일 진주시 대곡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실시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대구구치소는 3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구치소 내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과 참관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87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16일 7급 근속승진 임용식 및 배병도 교정장학금 전수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

했다. 김광희 소장은 “승진과 교정장학금 전수를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안동교도소는 3월 3일 수용자 44명을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를 완료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선거참관인의 입회 하에 기관 내 대강당에 마련된 거소투표소에서 미결수용자 25명과 수용자 19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를 마쳤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지은

신규 대체복무요원 적응 기간 운영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3월 7일 대체복무생활관 교육실 및 현장에서 신규 대체복무요원 적응 기간을 2주간 운영했다. 교육방법으로는 각 과별 업무 담당자가 시청각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이뤄졌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여직원 격려 행사

김천소년교도소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여직원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전달했다. 박동수 소장은 “조직문화의 특성상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웃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교정관 임명장 전달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3월 7일 소장실에서 '교정관 임명장 전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인원만 참석한 채 실시했으며, 고

상길 소장은 김진식 교정관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하며 교정관으로서 교정행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직원 비대면 교육 실시

울산구치소는 3월 2일 유연근무제 등 직원 복무관리 철저를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실시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병가, 특별휴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복무규정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봤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경주교도소는 3월 2일과 16일에 승진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서보근 소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수용자 물품 기증

통영구치소는 3월 3일 한국 청소년폭력방지협회로부터 KF94 마스크 3,000개를 기증받았다.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전달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전달했으며, 모든 수용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학생 장학금 전달

밀양구치소는 3월 21일 관내 자매결연 학교인 북초등학교를 방문해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

했다. 이날 북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교우 관계가 좋은 학생 5명에게 장학금 각 20만 원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상주교도소는 3월 16일 7급 근속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승진한 교위 박재두 등 2명은 “책임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소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의 하나로 3월 24일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겨우내 쌓여 있던 낙엽 청소와 청사 출입구, 청사 울타리 외곽 및 민원인 주차장 주변 쓰레기를 제거했으며, 각과 사무실을 정리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수용자 표어 공모전 개최

대전교도소는 3월 14일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수용 생활 중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표어 공모전' 최종 선정 심사를 열었다. 이날 수용자 245명이 제출한 표어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장려상 5명 등을 선정했으며, 3월 28일에 개별적으로 시상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오한

모범 교정공무원 표창

청주교도소는 3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해 지난 2월 모범 교정공무원으로 선정된 교도 신동우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교위 김민석, 교위 이순석, 교도 이강원을 축하했다. 교정행정 발전 유공으로 교도 신동우는 대전지방교정청장 표창을, 교위 김민석 등 3명은 각각 소장 표창을 받았다.

천안교도소 / 교사 조영웅

도주자 발생 자체 훈련

천안교도소는 3월 15일 도주자 발생 대비 자체 체포 훈련을 실시했다. PCR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대비 체계를 탄탄히 하고 교정사고 예방 등 수용 관리를 더 철저히 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3월 3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거소투표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표를 희망하는 수용자 17명을 대상으로 청주시 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정당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공주교도소는 3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3명이 방문해 투표소 입

회하에 진행됐으며, 노역수 등 총 57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송근열

수용자 거소투표 실시

충주구치소는 3월 2일 다목적운영실에 거소투표소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명과 참관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미결수용자, 노역장 유치자, 징역 1년 미만 수용자 중 거소투표를 희망한 46명이 소중환 투표권을 행사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정조원

직원 참나무 심터 조성

홍성교도소는 3월 7일 교도소 뒤편에 위치한 공간에 참나무 심터를 조성했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소속 직원들이 참나무 심터에서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심신 회복과 사기 진작 및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비대면 월례회의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2일 월례회의를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이번 비대면 월례회의를 통해 건의사항을 듣고 직원 사상, 기관장과의 대화 등 직원 및 부서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수용자 물품 기증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3월 4일 수용자들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졌다.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금선 이사장은 이날 KF94 마스크 3,000장

교정기관 NEWS

을 기증했다. 김병호 소장은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3월 2일 신규직원 임용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소장, 보안과장, 총무과장 및 총무과 직원 등은 새롭게 직원이 된 공업서기보 시보 송영우 등 2명에게 화분을 증정하고 축하문 낭독, 기념 촬영, 임직원 소개 등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3월 18일 각 소속기관의 코로나19 방역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자 현장을 방문했다. 신용해 청장은 각 소속기관의 기관장 이하 현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광주교도소는 3월 11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팬지 등 6종 총 2,200주의 꽃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얼었던 일상에 따뜻한 봄날이 오길 기원하고,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꽃은 교정시설 청사 및 보안청사 주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3월 16일 승진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삼재 소장은 “승진을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사명감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승진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법무부 SNS 홍보 우수기관 선정

순천교도소는 3월 10일 법무부 SNS 홍보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포상과 우수직원 표창을 받았다. 법무부 대변인실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SNS 홍보 포상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지훈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3월 8일 목포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 수용동 증축 공사 현장 및 대체복무팀의 상황을 점검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방역에 더욱 철저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신규 기간제 근로자 환영식 개최

군산교도소는 3월 14일 기간제 근로자인 강정화 간호사의 환영식을 열었다. 유기용 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당부 말을 전했다. 이에 강정화 간호사는 “군산교도소의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제주교도소 / 교위 이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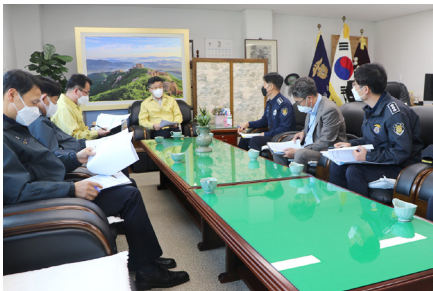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3월 16일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실태 점검을 위해 제주교도소에 방문했다. 신용해 청장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관리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격리 수용거실 및 미결 수용동을 직접 살펴보고 방역 실태를 점검한 후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흥교도소 / 교도 김민석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3월 24일 장흥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직원 및 수용자와 관련한 대처 현황 등을 청취하고, 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ESG 실천 공동협약 체결

해남교도소는 3월 10일 해남군청 주관하에 열린 ‘2022년 해남형 ESG 실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해남교도소는 관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정 환경·안전사회·신뢰행정(Environment·Social·Governance)’을 실천해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자는 공동협약에 동참했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출소 예정자 채용면접 행사 실시

정읍교도소는 3월 2일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출소 예정자 6명에게 전복 자동차 전문정비사업 조합과의 1:1 채용면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주교도소 교위 서갑원

서갑원 교위는 1996년 9급 교도로 임용된 후, 약 25여 년 동안 성실한 근무 자세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며 남다른 책임 의식과 역량 발휘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 의료과 진료실장으로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어려움 속에서 수용자와 수시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직원 및 수용자 PCR 검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



창원교도소 교위 승희진

승희진 교위는 지난 2022년 1월 8일 보안청사 앞 컨테이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확인하던 중 통제실로부터 컨테이너에 수용됐던 수용자가 문을 부수고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 이에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해 가족접견실 옆 배수관을 타고 도주를 시도하던 수용자를 발견하고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수용자가 지시에 불응하고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위협했지만, 이를 즉시 제압하고 체포하는 등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공주교도소 교위 김학중

김학중 교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PCR 검사 준비 및 방역에 솔선수범했으며, KF94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레벨D 방호복과 4종 세트 보호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했다. 감염 의심 상황 발생 시 물품을 적시 지급하는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으며, 업무용 PC를 활용해 수용자의 투약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거실별 투약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활용해 의약품 과오지급과 오남용을 방지했다.



목포교도소 교위 박종남

박종남 교위는 2005년 임용 후 약 17년 동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타의 모범이 돼 왔다. 특히 목포교도소 보안과 코로나19 대응 담당자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감염병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정기관 내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격리해 관리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역할을 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용자지원 안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란?

탄소중립을 선도할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있으나,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혁신기술·공정·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탄소중립 선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저리·장기 용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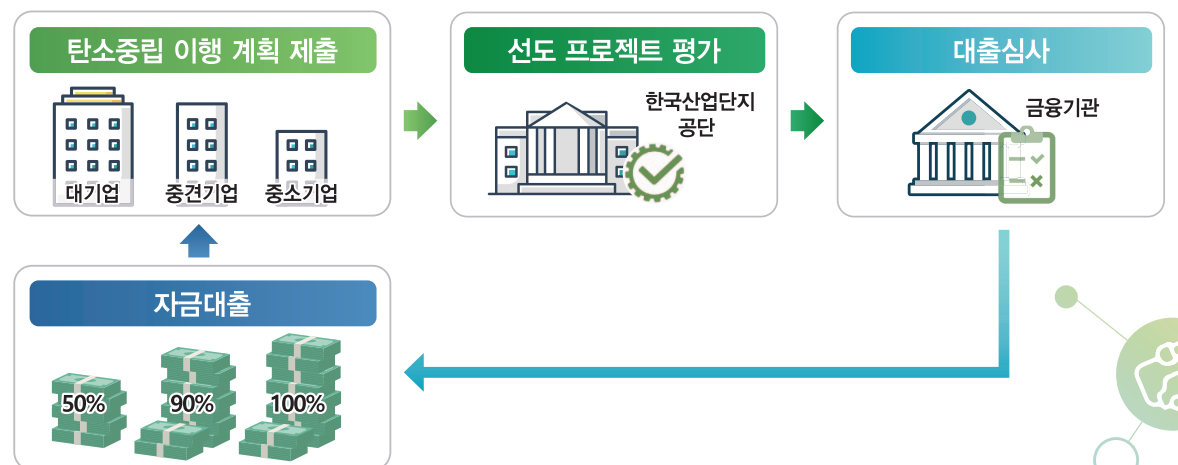
지원대상

-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에 투자 또는 투자예정인 중소·중견·대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용자비율	실 소요자금 기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중소) 100%, (중견) 90%, (대기업) 50% 이내
지원한도	사업장당 최대 500억원 ※ 시설자금(500억원 이내) 및 기술개발자금 (100억원 이내)을 합산
대출금리	최저금리 1.30%,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준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신규대출금리 - 2.00%p ※ (중소) 기준금리 (중견) 기준금리+0.10% (대기업) 기준금리+0.20%p
대출기간	최대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절차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탄소중립 용자지원TF TEL. 070-8895-7558 / 7186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월간 <교정>에 참여해 보세요!

월간 <교정>은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거나 다양한 코너에 직접 참여해 보세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며, 소중한 일상을 특별하게 기록해 드립니다.



취미의 공유

자신의 취미 혹은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가족과 함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봅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경제, 건강, 교육,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해결합니다.



교정의 일기

에세이, 시, 그림, 서예 등 교정공무원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전합니다.
(원고료: 상품권 10만 원)



월간 <교정>의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 방법 1** 메일(correct2015@naver.com)로 참여를 원하는 신규 콘텐츠와 인적사항 등 발송
- 방법 2** QR코드 스캔 후 독자 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신규 콘텐츠와 설문조사 진행

QR코드를 스캔해 참여해 주세요.

